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2월

석사학위논문

백발 소재(素材) 시조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 태 현

백발 소재(素材) 시조 연구

A study on 'White hair' Sijo.

2022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 태 현

백발 소재(素材) 시조 연구

지도교수 이상원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 태 현

박태현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엄 태식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정 길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이 상원 (인)

2021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론	1
1. 연구 목적.....	1
2. 연구사 검토	2
3. 연구 범위 및 서술 방향.....	4
II. 이론적 배경.....	5
1. 김천택의 분류 방식.....	5
2. 윤영옥의 분류 방식.....	11
3. 소결.....	16
III. 백발 소재 시조의 유형의 분류.....	18
1. 탄로 : 늙음에 대한 탄식.....	18
2. 노장 : 늙음을 순리로 여김.....	25
3. 노화 : 늙어 가는 모습.....	30
4. 유락 : 늙었어도 즐기는 모습.....	33
5. 소년경계 : 젊은이를 향한 충고.....	38
6. 계일 : 날짜 감을 아쉬워함.....	42

IV. 백발 소재 시조의 문학사적 의의.....	46
V. 결론.....	56
참고문헌.....	58

Abstract

A study on 'White hair' Sijo

Park Tai Hyun

Advisor : Prof. Lee Sang-won, Ph.D.

Dep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images and contents of "old" and "white hair" in the late Goryeo Dynasty to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o point out the expressions of emotions the elderly feel as they get older.

People are bound to get old and retire someday. Then, they try to find various means and methods to escape the fear of death, but there is no other alternative. How did the old people try to accept this process in the founder?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motional expression of the old and the emotional expression of the modern?

The old people seem to have used a lot of humorous expressions to deny old age, and the elderly are singing a lot of songs that look back on their past lives with "white hair" and miss their youth and regret their lives that have passed by. On the one hand, he regrets his dissipated life when he was young and does not forget the advice of filial piety

and affection between parents and brothers to young people. He also shows self-reflection and shows vigilance to young people.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een that the Confucian idea at the bottom also contains some works that teach young people about respect and filial piety and loyalty to the elderly.

Chapter II examines the subject classification method included in the "Mr. Mumyeong" item of Kim cheon taek's Cheonggu Young-eon.

54 main words were classified in the category of Isaac Daeyeop's Mumyeong, and they were evenly classified into 1 to 6 works for each main word. There are 104 works included in each subject word, and only works directly related to 'white hair' will be selected and analyzed.

Chapter III selects 157 songs with the vocabulary of "white hair" from 46,400 songs collected by Kim Heung-gyu and six others and included in "Goshijo Daejeon" to show lament about old age, changed appearance, and a day of leisure to young people after retirement.

Chapter IV examines age and death through the function of gray hair. Among the poems symbolized by death, gray hair and oldness tell us that life is not far away. "In fact, old age is a sadness in life. Who would praise old age and welcome death? Life contains sadness, so life is like dew at the end of grass and is fleeting," Shim Jae-wan said, comparing death and life to dew at the end of grass and speaks of futility and fleeting. We will also look at what is in the consciousness of death in the relationship between gray hair and death. In the sijo, it is described that the elderly spend their days in

psychological anxiety. These expressions may be conventional, but in reality, the elderly are bound to suffer a lot of mental atrophy as they get old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meaning of old people living in anxiety and fear and death. Let's also look at what they think of the afterlife after death. Death is fair to everyone. And it is an irresistible necessity. Old age is thought to be the last stop in life. I think you should have self-reflection and face the afterlife.
Key words: white hair, old age, old man, death, afterlife.

I. 서론

1. 연구 목적

본 논문은 백발을 소재로 한 시조를 대상으로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옳은지 살펴보고 그것의 문학사적 의의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백발은 시조에서 늙음을 상징하는 대표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늙음을 노래한 시조의 시적 지향은 하나로 통일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늙음을 한탄하는 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시선으로 늙음의 문제를 포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발의 시적 기능도 다양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양상을 띠고 나타나는 백발 소재 시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통해 시조에 나타난 늙음에 대한 인식을 규명하고자 한다.

옛 선인들의 시조 작품에는 백발, 백수, 흰 털, 흰 터럭, 센머리 등의 어휘가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어휘들은 노인, 노화의 상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화자를 통하여 늙음을 탄식하게 하며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원망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는가 하면, 주색에 빠져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라고 충고하는 경륜가(經綸家)의 표상으로 백발이 활용되기도 한다.

이렇듯 백발을 소재로 사용한 시조들은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 다양한 양상을 몇 가지로 나누어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의 논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분류하여 정리해 왔는지를 고찰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유형 분류의 방식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유형별로 작품을 배치하여 자세히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이들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백발을 소재로 고찰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늙음의 문제를 다룬 연구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여기서는 시조에 나타난 노년, 노인, 늙음의 문제를 다룬 기존 연구를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윤석열은 노인들이 늙었다는 것을 잘 알게 하는 것은 흰 머리와 주름진 얼굴이라 하며, 시조에서 늙음의 본질을 표현한 것은 백발과 신체 기관의 약화를 들 수 있다고 하였다.¹⁾ 시조 작품 안에서 늙음의 어휘가 늙음의 본질을 어떻게 표현하였으며, 늙으면 어떤 모습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노인들은 늙음의 원인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또 그 늙음을 받아들여려는 자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임재옥은 「시조의 노년 표현법」이라는 논문에서 자연과 인간이라는 두 가지 유형의 소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자아와 자연물의 차이점에 주목하는 대비적 표현, 둘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하는 유비적 표현, 차이점과 유사성 모두를 드러내는 양가적 표현 등 노인을 표현하는 방법을 세 가지 유형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²⁾ 시조의 다양한 작품 속에서 노인들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연과 인간이라는 두 가지의 큰 틀로 이야기한 것이다.

김상진은 시조에 보이는 노년의 문제를 첫째는 노화한 현실과 늙어버린 자신의 현실에 대하여 서글퍼 하며 탄식하는 문제, 둘째는 지나간 젊음에 대한 열망과 욕망을 잊지 못하는 문제, 셋째로 자신의 과거를 예로 들며 젊은이들에게 경계를 이야기하며 학습하고 권선징악을 권하는 등 노년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노년에 대한 문제들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 않고 노년을 잊고 즐겁게 보내며 긍정적으로 삶을 대하는 노인들도 있다고 했다.³⁾

윤영옥은 시조에 보이는 노인의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늙은이 얼굴은 늙은 자신이 봐도 더럽고 밉고 싫다고 한다. 구름이 낀 듯 검버섯이

1) 윤석열, 「고시조에 나타난 늙음의 지각과 대응 양상」, 청주대학교 석사논문, 2002, 16쪽.
 2) 임재옥, 「시조의 노년 표현법」, 『돈암어문학』 36, 돈암어문학회, 2019, 7~31쪽.
 3) 김상진, 「시조에 나타난 ‘노년’의 고찰」, 『어문론집』 69, 중앙어문학회, 2017, 187~217쪽.

피어 있으며, 콧물은 줄줄 흘러내리고 정강이에 살은 삐죽 말라 장작개비처럼 되어서 걷기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⁴⁾고 노인들의 노추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최선경은 『청구영언』에 실려 있는 노인 시조를 대상으로 노화와 백발에 대한 표현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중년 이후로 오는 늙음의 자각 증상으로 신체 변화의 하나인 백발이 오는 것을 들 수 있다. 늙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삶의 종말에 가까이 와 있기에 인간의 본질과 삶의 의미에 대한 성찰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고 했다.⁵⁾

김양진은 고전문학 속에 등장하는 노인을 외형적 특징과 내면적 특징으로 나누었다.⁶⁾ “내면적 특징은 연륜으로 인해 풍부한 지혜와 사회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것이며, 외형적 특징은 늙음의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로 노화의 모습을 말하고 있다.”⁷⁾ 노인들은 나이를 먹어 가면서 노련함과 경험을 내세워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적 가치관을 발휘하여 젊은이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다.

늙음이란 일반백성의 촌부나 사대부, 향촌 가객들 모두 공평한 것이다. 시조 문학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였던 백발을 소재로 한 작품 속에서 개개의 특수한 심리나 정서가 사회의 보편적 문제로 연결될 때 작품이 갖는 공감대는 심화되는 것이다. 시조 속에서 보이는 늙음의 소재는 단순한 상황의 묘사나 심리 상태를 드러냈다가보다는 심오한 의미와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고 본다. 특히 시조는 청춘의 문학이라기보다는 노년을 위한 문학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시조에서 백발이나 차탄의 어휘들이 많이 표출되었고 백발이라는 주제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⁸⁾ 노인들은 노화를 인식

4) 윤영옥, 「시조에 나타난 노인의 모습」, 『한민족어문학』 39, 한민족어문학회, 2001, 158쪽.

5) 최선경, 『『청구영언』 소재 ‘노인시조’의 내용과 수사에 대한 일 고찰』, 『수사학』 37, 한국수사학회, 2020, 189~220쪽.

6) 김양진, 「한국 고전문학의 노인 형상화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논문, 2007.

7) 김양진, 위의 논문, 78~109쪽.

8) 정혜원, 「고시조에 나타난 내면 의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1986, 76쪽.

하게 되면 시간의 흐름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려 한다. 노인들의 시간관념이 물리적인 면보다는 심리적인 면이 더 많이 작용 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시조에서 청춘, 흥안, 각시, 도령님이란 어휘들이 많이 표출되는 것은 노인들의 삶과 곤장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삶에 대한 태도는 지극히 중심적인 사고가 유한함을 말하여 주고 있다.

3. 연구 범위 및 서술 방향

본 논문은 백발을 소재로 한 시조를 고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백발이라는 어휘가 사용된 시조가 연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가장 최근에 집대성된 시조 자료집인 『고시조 대전』⁹⁾에서 백발 및 그 유사 어휘(백수, 흰 터럭, 흰 머리, 흰털, 센머리 등)를 검색한 결과 이들 어휘가 사용된 작품은 157수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157수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청구영언』 무명씨에 나타난 김천택의 주제 분류와 대표적인 현대 연구자들이 노인(노년, 늙음) 시조를 분류한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백발 소재 시조를 몇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마련한 유형별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개별 작품들에 대한 예시와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타 유형과 구별되는 특성들을 서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검토한 백발 소재 시조들이 문학사적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V장은 결론으로 앞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이 논문의 한계를 간략히 밝히고자 한다.

9) 김흥규, 이형대, 이상원, 김용찬, 권순희, 신경숙, 박규홍 편저, 『고시조 대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2.

Ⅱ.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늙음을 다룬 시조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백발소재 시조를 몇 가지로 나누어 고찰하는 것이 합당할지 알아보려고 한다.

1. 김천택의 분류 방식

『청구영언』을 편찬한 김천택은 작가를 알 수 없는 작품 104수를 무명씨라는 이름 아래에 수록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104수의 작품을 54개의 주제어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 중 늙음에 관계된 작품들은 탄로(歎老), 노장(老壯), 계일(戒日) 등 세 주제어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청구영언』에서는 무명씨 104수 중에 늙음을 주제로 한 작품은 8편이다. 김천택은 이를 탄로 4편, 노장 2편, 계일 2편 등으로 나누어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김천택이 제시한 세 주제어가 각각 어떤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탄로

『청구영언』 무명씨에는 늙음에 관계된 작품이 8수 실려 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4수가 탄로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늙음을 다룬 시조 중 탄로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다면 탄로의 핵심 특징은 무엇일까?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무명씨 350

ㄴ자 내 少年이야 어드러로 간 거이고
 酒色에 줌겨신 제 白髮과 밧괴도다
 이제야 아므리 촛즌들 다시 오기 쉬우랴¹⁰⁾

10) 권순희, 이상원, 신경숙, 『김천택 편 청구영언(주해편)』, 국립한글박물관, 2017, 207쪽.

초장에서는 자신의 잃어버린 소년 적 시절에 대해 묻고 있다. 중장에서는 주색에 빠져 절제하지 못한, 방탕한 생활의 결과가 백발로 이어졌다고 하였다. 종장에서는 소년 시절로 다시 돌아가려 하지만 그것이 불가능을 알고 절망적으로 탄식하고 있다. 늙음을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초장에서는 화자가 ‘오자’라는 영탄과 아쉬움을 나타내는 표현을 함으로써 되찾을 수 없는 젊음에 대한 한탄의 목소리가 강하다. 늙음에 대한 자각이 화자를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이가 들어 젊은 시절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했음을 보여 준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수 있는 자신의 과거를 숨김없이 보이면서 젊음에 대한 미련을 남기는 점도 있다.

무명씨 351

半나마 늘거시니 다시 점든 못혀도
 이 後|나 늙지 말고 미양 이만 ㅎ엿고자
 白髮아 네나 짐작혀 더디 늙게 ㅎ여라¹¹⁾

늙음을 탄식한 노래이다. 반나마 늙었다 했으니, 인생을 팔 십으로 봤을 때, 마흔 살을 막 넘겼던 모양이다. 그러면서 젊음은 다시 오지 못할 거라지만, 다시 젊고 싶다는 욕망이 중장 끝부분에 감추어져 있다. (매양) 더 늙지 말고 이대로 있고 싶다는 말에 진심이 담겨 있다. 늙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초로에 들어서면서 늙어 감을 한탄한 노래이다. 종장에서는 젊음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늙더라도 최대한 천천히 더디 늙게 해달라는 애뜻함을 노래하고 있다.

무명씨 352

늬도 준 배 업고 바든 바도 업건마는
 怨讐 白髮이 어더러서 온 거이고
 白髮이 公道| 업도다 날을 몬져 늙킨다¹²⁾

11) 위의 책, 207쪽

12) 위의 책, 208쪽

초장에서는 늙음이란 남들과 주고받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남이 나에게 준 적도 없고, 내가 남에게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그런데 백발은 어디서 왔냐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늙음에 대한 원망을 토로한 것이다. 원수 같은 백발은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백발은 유독 나에게 먼저 찾아오더라 하소연한 것이다. 늙음을 탄식하는 탄로의 노래이다. 이 작품에서는 주관적인 눈으로 보는 입장이 나타난다. 원수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해 왔을 때 쓰는 언어다. 이 작품에서 주관적이라 한 것은 백발이 나에게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다란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다.

무명씨 353

희여 검을지라도 희는 거시 서로려든
 희여 못 검는디 늙의 문져 힐 줄 어이
 白髮이 公道 | 작도다 날을 문져 비안다¹³⁾

초장은 한번 희었다가 다시 검어질지라도, 희어지는 것은 서럽다고 했다. 중장에서는 한번 희어진 머리는 다시 검어지질 못하는데 남들보다 먼저 희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느냐고 한탄하는 것이다. 종장에서 백발은 누구에게나 때가 되면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 중 나에게 먼저 재촉한다며 탄식하고 있다. 백발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하게 오건만, 화자는 자신에게만 빨리 오는 것처럼 느낀 것이다. 화자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다.

이상 김천택이 탄로로 분류한 작품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이들 작품에서는 늙음을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에게만 닥친 불행한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들 작품에서는 늙음을 오지 말아야 할 것, 두려운 것, 원수 같은 것, 최대한 늦게 만나고 싶은 것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13) 위의 책, 208쪽.

2) 노장

김천택은 늙음에 관계된 작품 8수 중 2수를 노장으로 분류하였다. 그렇다면 노장은 앞에서 살펴본 탄로와 어떤 변별성을 갖는 것일까?

무명씨 354

靑春 少年들아 白髮老人 웃지 마라
 공변된 하늘 아래 넌들 미양 저머시라
 우리도 少年 行樂이 어제론 듯 ㅎ여라¹⁴⁾

초장에서는 소년들에게 세월이 공평하게 흐른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제시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중장과 종장에서는 세월의 흐름은 공평하여 누구나 늙을 수 있다는 자연의 이치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늙은이들에게도 너희들처럼 젊었을 때가 있었으니, 너희들도 언젠가는 늙게 될 거라는 것을 일깨워주며, 늙음이 누구에게나 닥쳐올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임을 밝히고 있다.

무명씨 355

귀밋치 세여시니 늙이 늙다 ㅎ려니와
 내 ㅁ음 저물선정 늙의 말 허믈ㅎ라
 곱과 술 ㅈ히 너기기야 ㅅ튼 老少 이시리¹⁵⁾

이 작품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겠다는 주제적 사고 인식이 담겨 있는 노래다. 객관적인 시간과 주관적인 마음을 분리하여 사고하고 있다. 귀밑의 흰 머리카락을 보고 남들이 늙었다고 흥을 보고 있다. 그러나 중장에서는 남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 자신은 젊었으니 상관할 바 아니라는 것이다. 화자의 생각이 확고하다. 그러면서 종장에서는 꽃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하는 마음은 늙은이와 젊은이의 마음이 다 같다고 하였다. 종장은 어떤 행(行)보다도 화자의 주관의 확고한 장이라 하겠다.

14) 위의 책, 209쪽.

15) 위의 책, 209쪽.

노장으로 분류한 두 작품에서 탄로와 차이가 나는 지점은 늙음을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보편의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탄로의 경우 늙음은 자신에게만 닥치는 불행으로 여기기 때문에 한탄의 정서가 중심을 이룰 수밖에 없다. 반면 노장의 경우에는 늙음은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찾아오는 자연스럽게 보편적인 현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육체의 노화와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주체적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3) 계일

김천택은 계일을 탄로, 노장에 이어 배치함으로써 이 또한 늙음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작품임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계일이 늙음과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일까? 또 탄로, 노장과는 어떻게 변별되는 것으로 인식한 것일까?

무명씨 356

나의 未平한 뜻을 日月세 못잡느니
 九萬里 長天에 무스 일 비얏바셔
 酒色에 못 슬민 이 몸을 수이 늙게 흐느고¹⁶⁾

화자는 빨리 늙어 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해와 달에게 토로한다. 여기에서 늙는 것과 관련하여 탄로는 자신을 자책하지만, 계일은 해와 달이 세월을 재촉하여 빨리 늙게 만든다고 했다. 따라서 해와 달에게 빨리 늙게 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탄로에서는 화자 자신이 세월의 흐름을 스스로 느껴서 덧없음을 원망하고 서글퍼하는 것이지만, 계일에서는 화자 자신이 느끼긴 하지만 세월을 빠르게 가게 하는 주체가 따로 있어서 그 주체인 해와 달에게 세월의 흐름을 전가시키고 있다는 점이 탄로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화자 자신이 주색에 미쳐 있기는 하지만 긴 시간을 빨리빨리 가면서 쉬이 늙게 한다고 원망 가득한 푸념을 하고 있다.

16) 위의 책, 210쪽.

무명씨 357

金鳥 玉兔들아 뉘 너를 쫓니관다
 九萬里 長天에 허위허위 든니논다
 이 後란 十리에 한 번씩 쉬엄쉬엄 니거라¹⁷⁾

금오란 해를 말하고, 옥토는 달을 가리키고 있다. 해와 달에게 구만리 먼 길을 무엇 때문에 빨리 가느냐고 묻고 있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앞으로는 그렇게 빨리 가지 말고 십 리에 한 번씩 쉬면서 쉬엄쉬엄 천천히 가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덧없이 빨리 흘러간 세월을 해와 달에게 책임을 묻고 있으며 그 해결책을 해와 달에게 찾고자 한다.

이처럼 계일은 해와 달을 등장시켜 세월이 흘러감을 경계하는 작품을 가리킨다. 늙음을 경계하고 늙지 않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탄로와 유사하지만 늙음이 자신에게 닥친 불행한 삶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는 점에서 탄로와 구별된다. 따라서 빨리 늙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는 하지만 이를 한탄하지는 않으며, 늙어 감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그래도 천천히 가면 좋지 않겠느냐고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소망을 드러낸다.

17) 위의 책, 210쪽

2. 윤영옥의 분류 방식

18세기의 김천택은 늙음에 대한 시조를 탄로, 노장, 계일의 셋으로 분류하였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 연구자들은 늙음 시조를 어떻게 분류하고 있을까? 여기서는 늙음 시조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진 윤영옥의 논문¹⁸⁾에 나타난 분류 방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윤영옥은 「시조에 나타난 노인의 모습」이라는 논문에서 ① 노추(老醜)와 자괴(自愧) ② 탄로(嘆老)와 불가갱소년(不可更少年) ③ 이루지 못함에 대한 후회 ④ 유유자적(悠悠自適) ⑤ 축수(祝壽)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1) 노추(老醜)와 자괴(自愧)

노추란 추하게 늙은 모습을 말한다. 늙음도 여러 가지로서 자연스럽게 늙어 가는 모습, 질병 등으로 늙어 가는 모습, 경제적인 빈곤으로 늙어 가는 모습 등을 들 수 있는데 늙은이들은 자신의 모습에서 추함을 발견하고 매우 서글퍼 하거나 때로는 우울증에 깊이 빠지게 된다. 이러한 생리적 변화는 곧 심리적 변화로 발전하게 되며,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의 감퇴를 가져온다. 늙은이가 되어 겉으로 보기가 싫을 정도로 추하게 변화가 왔을 때, 또는 자신의 추함을 보고 스스로 부끄럽게 느꼈을 때 노추라 할 수 있다.

고시조 대전 4345.1 산양 0128
 제 얼굴 제 보아도 더럽고 슬미워라
 검버섯 구름 낀 듯 코침은 장마진 듯 이전에 없던
 뼈새바위 엉덩이 울근불근
 우리도 소년 행락이 어제런 듯 하여라¹⁹⁾

늙은이의 얼굴은 늙은 자신들이 보아도 추하고 싫다. 곱살스러운 얼굴에 탱탱한 피부를 지녔던 젊은 시절에는 천하가 다 자신의 것처럼 생각되었지

18) 윤영옥, 앞의 논문, 155~174 쪽.

19) 김흥규, 이형대, 이상원, 김용찬, 권순희, 신경숙, 박규홍 편저, 앞의 책.

이하 작품 인용은 이 책에 의거한 것이므로 별도로 주석을 달지 않기로 한다.

만, 검버섯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은 자신이 봐도 추하고 싫다. 세상의 모든 괴로움과 추함을 혼자 다 안은 것 같다. 초장에서는 화자 자신이 보아도 자신의 모습이 께죄죄한 것이 부끄러울 정도이다. 거기에다 얼굴에 검버섯은 마치 파리떼가 붙어 있는 것 같다. 코는 어린애들처럼 줄줄 흐른다. 노인들은 늙으면 몸에 수분이 다 받아 없어진다. 앙상한 뼈만 남는다. 종장은 늙음과 젊음의 대비다. 노인들에게도 얼마 전까진 젊은 시절이 있었노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2) 탄로(嘆老)와 불가갱소년(不可更少年)

늙어 간다는 것은 노화로 인한 외적 변화와 내적 변화가 함께 하는 것으로 노인들이 그동안 살아온 연륜에 따른 존경과 권위를 담고 있다. 세월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 그 허무함을 잊고 살아야 할 것이다. 노인들은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자아 성찰을 함으로써 젊은이들에게 경계의 모습을 보이며 어른으로 존경받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늙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오히려 불행으로 여겨 한탄하고 다시는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질없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욕망을 드러내기도 한다.

고시조 대전 1015.1 고금 0100

넓으나 넓은 들에 흐르나니 물이로다
 인생이 저렇도다 어드러로 가는게오
 아마도 돌아올 길 없으니 그를 슬허하노라

인생을 흐르는 물에 견주어 나타냈다. 물은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화자가 주목한 물의 속성은 한 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물의 속성과 같이 인생도 한 번 늙으면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한탄하는 것이 이 시의 태도다.

3) 이루지 못함에 대한 후회

젊어서 품고 있던 의지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한탄의 노래로 분류하였다. 장부로서 나라와 임금에 충성하고자 꿈을 가졌으나 그 꿈을 이루기 전에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백발이 되어 있더라는 것이다. 인생 백 년을 다 살지 못하면서 살아 있는 동안은 무언가 이루려 함이 있을 것이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파란이 많을 것이다. 이루려는 괴로움²⁰⁾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여덟 가지 괴로움 중 하나다.

고시조 대전 3930.1 약고 0499
 인생이 유한하고 세월이 여유하니
 장부의 공업을 어느 때에 이를 소나
 경리에 백발을 보니 가슴 끄찍 하여라

인간에게는 삶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정해진 수명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 장부로서 공업을 언제나 이룰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 공업을 이루기 전에 백발이 거울 속에 비친다. 세상사에 쫓기다 보면 거울을 볼 시간이 없다. 만년 청춘을 생각하나 백발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초장에서는 인생을 흐르는 물에 비유하는 비유법이 쓰였는데 이는 시조 작품에서 관습적인 표현 방법이다. 종장에서는 항상 젊어 있을 줄 알았던 화자 자신이 거울 속에 비치는 백발을 보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4) 유유자적(悠悠自適)

유유자적의 생활은 젊었을 때 주색에 빠져 허랑방탕하게 산 것과는 대조적인 삶이다. 유유자적은 현실 정계에서 퇴휴한 후, 삶의 공간으로서 벼슬을 떠난 사대부들이 산수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는 것을 가리킨다.

20) 불교의 경전(법구경) 중에서 여덟가지 괴로움이란, 생(生), 노(老), 병(病), 사(死)의 사고(四苦)와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증회고(怨憎會苦), 구부득고(求不得苦), 오음성고(五陰盛苦)를 말한다.

고시조 대전 0316.1 청진 0399

공명도 욕이러라 부귀도 수괴러라
 만경창파에 백발어옹 되어 있어
 백일이 조창량한 제 오명가명 하리라

남이 부러워하는 부귀이지만 때로는 그것이 부끄러울 수 있다고 했다. 정도에 벗어나 과한 욕심을 낸다면 부끄럽고 추할 수 있다. 그러기에 누구든 자기 분수에 맞게 지내면 되는 것이다. 공명과 부귀에서 벗어나 백발의 어부로서 푸른 바다를 벗 삼아 오며 가며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 한다. 삶에 여유로움이 가득 묻어 있다. 이 작품에서는 서러움과 탄식의 소리가 없는 여유로움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유유자적이다. 종장은 어부가 되겠다는 소망을 가득 담고 있다. 한없이 넓은 바다에서 어부가 되어 강호 자연을 즐기겠다는 것이다. 종장은 어부로서의 생활을 이야기한다. 햇빛이 반짝이는 푸른 물결 위에서 오거니 가거니 하며 유유자적 살겠다고 했다. 어부의 생활 속에서 자연을 벗 삼아 살겠다는 낭만적인 소망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5) 축수(祝壽)

축수라는 것은 건강과 안녕을 바라며 오래오래 장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나 생신 등 축하 때 올리는 노래이다. 자식들이 부모의 생신 때 올리는 술잔도 축수를 기원하며 올리는 것이다.

고시조 대전 1544.1 경노 0003 박인노

萬鈞을 느려내야 길게 길게 노를 쏘와
 九萬里 長天에 가는 히를 자바미여
 北堂에 鶴髮雙親을 더디 늘게 흐리이다

부모님에게 장수하길 빌어 드리는 것은 내가 취할 수 있는 행위로는 최상의 방법일 것이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여도 부모님들에게 환갑이라 하여 잔치를 베풀어 오래 사시길 축원하여 드렸다. 노인들은 덧없는 세월의 무상함을 한탄하면서도 장수하기를 원한다. 백발의 부모들이

더디 늙어 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늘의 해를 붙잡아 매어 놓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부모님을 더디 늙게 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윤영옥은 이 작품을 축수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해의 운동을 멈추게 하여 늙음을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하는 표현법은 김천택이 계일로 분류한 작품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김천택이 계일로 분류한 것을 윤영옥은 축수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영숙의 「노인가류 가사의 서술방식과 의미」²¹⁾에서는 시조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가사 <노인가>를 대상으로 분류를 시도한 것이지만 늙음에 관계된 작품에 대한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참고로 삼고자 한다.

서영숙은 논문에서 주제별 특징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① 노인 자탄형

늙음에 대한 한탄과 젊음에 대한 회고를 주로 하며 일방적인 자기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② 소년경계형

늙음을 한탄하면서 소년들에게 이를 거울삼아 학업과 덕행을 쌓을 것을 경계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③ 노소 대립형

소년과 노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인을 비웃는 소년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경계할 것을 권하는 노인과 소년 간의 대립적 인식을 함께 보여 준다.

④ 노인 비판형

노인의 추한 모습과 그릇된 행동을 보여 줌으로써 나이만 내세워 대접받

21) 서영숙, 「<노인가>류 가사의 서술방식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13, 한국고전문학회, 1998, 93~119쪽.

기를 원하는 노인을 비판하고 있다. 서술자의 시각이나 노인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삼자의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작품이 일인칭으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유형은 삼인칭 시점으로 되어 있다.

3. 소결

앞서 김천택의 『청구영언』 무명씨, 윤영옥과 서영숙의 논문을 통해 늙음을 다룬 작품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서술의 편의를 위해 세 사람의 분류를 모아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김천택 : 탄로, 노장, 계일

윤영옥 : 노추와 자괴, 탄로와 불가쟁소년, 이루지 못함에 대한 후회, 유유자적, 축수

서영숙 : 노인 자탄형, 소년경계형, 노소 대립형, 노인 비판형

김천택의 탄로, 윤영옥의 탄로와 불가쟁소년, 서영숙의 노인 자탄형은 거의 같은 것으로 판단된다. 김천택의 노장은 다른 두 사람의 분류에서는 찾기 어렵다. 김천택의 계일과 윤영옥의 축수는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윤영옥의 분류에서 이루지 못함에 대한 후회는 탄로로 통합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윤영옥 분류에서 새로운 것은 노추와 자괴, 유유자적이다. 노추와 자괴는 노인의 신체 변화, 즉 노화와 관련된 것이므로 별도로 독립시키되 노화의 모습을 그리는 데서 나아가 탄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탄로로 분류하고자 한다. 유유자적은 늙은 후에도 삶을 즐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유락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서영숙의 분류에서는 소년 경계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 자탄은 탄로와 일치하고, 노소 대립과 노인 비판은 시조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늙음을 노래한 시조를 다음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고자 한다.

탄로 : 늙음에 대한 탄식

- 노장 : 늙음을 순리로 여김
- 노화 : 늙어 가는 모습
- 유락 : 늙었음에도 즐기는 모습
- 소년경계 : 젊은이를 향한 충고
- 계일 : 날짜 감을 아쉬워함

이상의 분류에 입각하여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157수를 나누어본 결과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백발 소재 시조의 주제별 분류와 분포

번호	주제어	시조 수	백분율(%)
1	탄로(늙음에 대한 탄식)	66	42.0
2	노장(늙음을 순리로 여김)	23	14.6
3	노화(늙어 가는 모습)	19	12.1
4	유락(늙었음에도 즐기는 모습)	22	14.0
5	소년경계(젊은이를 향한 충고)	9	5.7
6	계일(날짜 감을 아쉬워 함)	18	11.5
7	합계	157	100(소수점 1이하 반올림)

위에서 보듯 주제어별 분류에서 ‘탄로’의 노래가 42.0%로 가장 많았다. 백발이 사용된 시조 중에 탄로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시조 작품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늙음을 한탄하지 않으면서 늙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노익장을 과시하는 노장이 14.6%, 노화로 인한 신체의 변화를 보여 주는 노화가 12.1%, 욕망과 세속을 버리고 자유로운 생활을 꿈꾸는 유락은 14.0%, 노인들이 자아 성찰을 통하여 젊은이들에게 충고하는 소년경계가 5.7%, 그리고 날짜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계일은 11.5%를 보였다. 위의 분류표에서 소년경계의 주제어가 가장 낮은 이유는 유교 사회에서 노인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Ⅲ. 백발 소재 시조의 유형 분류

여기서는 『고시조 대전』에 수록된 시조 작품에서 뽑은 백발 및 그 유사 어휘가 사용된 157수를 앞서 Ⅱ장에서 분류한 6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작품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작품 분석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첫째는 해당 작품이 6개의 유형 중 왜 특정 유형으로 분류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는 해당 작품이 그 유형으로 분류되도록 함에 있어 백발이라는 어휘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1. 탄로 : 늙음에 대한 탄식

일반적으로 늙어 가는 모습에 대한 탄식과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원망을 노래한 것이다. 노인가류의 노래는 탄로가나 백발의 노래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노인 또는 늙음을 주요한 문제로 서술하고 있다. 인간들은 누구나 늙음을 피할 수 없지만, 삶을 더 연장하고자 하는 마음은 인지상정이다. 이러한 탄로가는 시조에서 백발을 한탄하는 노래로 많이 서술되어 왔다. 노화는 신체적 변화와 심리적 변화로 오는 늙음을 말한다. 노인이 되면 이러한 변화로 인해 주위로부터 위축받기 쉽다. 신체적으로 오는 변화의 모습은 외형의 변화다. 얼굴은 덕지덕지 피어나는 검버섯에 콧물은 흘러 내리고, 말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허튼 말을 하게 되고, 눈도 어두워 앞가림도 어렵게 된다. 노인들은 늙어 갈수록 과거로부터 상실, 질병이나 육체적인 의욕 상실, 가족 간의 상실, 경제적인 상실로 인해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기 쉽다. 노화가 점차 진행되어 갈수록 육체적으로 더 피폐해 간다. 노인들은 세월의 흐름에 무상함을 느끼며 깊은 상심과 탄식으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된다. 백발과 늙음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작품 예시를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고시조 대전 1148.1 선석 0014 신계영
 늙고 병이 드니 백발을 어이 흐리
 少年行樂이 어제론 듯 하다마는
 아디가 이 얼굴 가지고 넷 내로다 흐리오

늙음을 탄식한 노래다. 모든 인생사가 그렇듯이 늙고 병든 모습에서 젊었던 시절의 모습을 찾으려 하나 더 이상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다. 이에 화자는 옛날의 나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다. 여기서 백발은 늙고 병들어 다시는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없는 노쇠한 육신의 상징으로서, 젊은 시절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한탄하는 시적 화자의 심정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고시조 대전 5304.1 병가 0047 우탁
 훈 손에 가시를 들고 쏘 훈 손에 막디들고
 늙는 길 가시로 막고 오는 白髮 막디로 치랴 툴나
 白髮이 제 먼저 알고 즈름길로 오더라

이 시조는 고려말 대학자 우탁(禹倬)의 작품으로서 탄로가(嘆老歌)로서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면서 매우 수준 높은 문학성을 갖춘 작품이기도 하다. 대구법과 활유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늙음을 맞이하는 작중 화자-자아의 심경을 적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초장은 병렬구조로 되어 있다. 오는 백발을 막기 위해 한 손에는 매를 잡음으로써 일단의 긴장 관계가 조성된다.²²⁾ 늙는 길은 가지 못하게 가시 막대로 막고, 백발은 오지 못하게 막대로 치려는 동작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역동적인 행동이 뚜렷하다. 이런 동적인 이미지로 말미암아 종장에서는 운율에 약간의 파격이 나타나기도 한다. 작품의 요지는 늙음이다. 늙음 자체를 나서서 막겠다는 적극성도 보이고 있다. 종장에서는 아무리 막아보려고 바둥대어 보지만 자연의 이치는 어길 수 없어서 백발은 지름길로 먼저 와 있더라는 명백함이다. 자연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보이고 있다. 작자는 늙음을 극복해 보려는 의지가 꺾이고, 자연의 순리를 수용하려는 허탈한 탄식을 하게 된다. 회한이 가득 담긴 노래이면서, 자연의 순리를 따라야 하며 헛된 노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는 지혜를 주는 노래이기도 하다.

22) 박수천, 「禹倬의 <嘆老歌> 분석」-훈 손에 가시를 들고-, 白影 鄭炳昱 先生 10週忌追慕論文集刊行委員會, 『한국고전시가작품론2』, 집문당, 1992, 465~466쪽.

고시조 대전 1138.1 풍대 0122 이세보
 늙고 병든 나를 무정이 비반하니
 가기는 가련이와 나는 너를 못 잊노라
 옛지타 흥안이 빅발을 이다지 마다

늙음을 탄식하는 노래이다. 늙고 병든 나를 누가 좋아하겠는가. 젊었을 때 가까이했던 친구들도 늙어버리면 다 떠나 버린다. 대유와 의인법을 사용하여 자신을 떠나 버린 흥안의 청춘을 원망한다. 그러나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젊음은 잊지 못하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한다.

고시조 대전 1159.1 해수 0059 우탁
 늘거 말너지고 다시 저머 보려터니
 靑春이 날 속이니 白髮이 거의로다
 잇다감 꽃밭출 지날 제면 罪지은 듯 ㅎ여라

초장에서는 젊음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말하여 주고 있다. 초장에서는 늙음과 젊음을 대비시켜 늙지 말고 젊어지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욕망)을 말한다. 항상 그대로 있을 줄 알았던 젊음이 화자 자신을 속이고 달아나 버려 배신감을 갖는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꽃밭을’이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젊음의 정점과 대비시켜 자신의 초라한 늙음이 죄지은 것처럼 부끄럽다고 하였다. 부끄럽다고 한 것은 화자가 젊음에 가치 기준을 두었기 때문이다.

고시조 대전 2216.1 해주 0375 이정보
 사람이 늙은 後에 또 언제 젊어 볼꼬
 썩진 이 다시 남녀 썩 먼이 검을쓴가
 世上에 不老草 업쓴이 그를 슬허호노라

이미 늙어 버렸으니 언제 다시 젊어질 수 있을까 반문하며 덧없는 세월을 탄식하고 있다. 빠진 이가 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센머리(하얀머리)가 다시 검어지겠는가 하고 반문한다. 그러면서 불로초에 의지하고자 함을 보이며, 찾던 불로초가 없음을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다.

고시조 대전 1789.3 약서 0500

바람아 부지을 마라 휘여진 정자나무 입이 다 찌러진다
 세월아 가지 마라 장안 호걸리 다 늙는다
 백발이 네 짐작하여 더디 늙게 하여라

화자는 덧없이 가는 세월을 붙잡고자 한다. 흘러가는 세월을, 불어 대는 바람에 비유했다. 세월의 흐름을 피부로 느끼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제적인 나뭇가지를 흔들어 대는 바람에 비유한 것이다. 바람이 불어 정자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세월의 흐름이 노인을 만들고 백발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휘여진 정자나무’는 허리가 구부정한 우리의 신체 모습이라 할 수 있다. 몸이 구부정하였으니, 휘여진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러나 늙음을 탄식하고 원망하면서 지연시키고자 하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작품이다.

고시조 대전 3041.1 선석 0012 신계영

아해 제 늙은이 보고 白髮을 비웃더니
 그 더대 아해들이 날 웃을 줄 어이 알리
 아해야 하 웃지 마라 나도 웃던 아해로다

초장에서는 화자가 어린 시절에 늙은이의 백발을 보고 비웃던 경험을 말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화자 자신의 현재 처지를 말하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말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아이에게 늙은 것을 비웃지 말라고 하여 자신의 늙은 처지를 한탄하고 있으며, 늙음은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 주고 있다.

고시조 대전 3071.1 병가 0466 박문옥

알고 늙었는가 모르고 늙었노라
 酒色에 줍것거든 늙은 줄 어이 알니
 귀 맞히 白髮이 훗날니니 그를 슬허 호노라

늙음을 탄식하는 탄로가다. 초장에서는 먼저 알고 늙었느냐, 모르고 늙었느냐고 묻고 있다. 그러나 늙음의 향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청춘이 매양인 줄 알지만 늙음은 모르는 사이에 찾아온다. 중장에서는 주색에 빠져 있어서 늙어 가는 줄도 몰랐다고 했다. 어느 날 보니 늙어 있더라

는 것이다. 종장에서는 귀밑에 백발이 흩날리고 있는 걸 발견하고 허송세월에 대해 성찰과 후회 속에 슬퍼한다고 했다.

고시조 대전 0911.1 고금 0098

내 나흘 풀쳐 내여 열 다솨만 헛얏고져
 셤 털 검겨 니여 아히 양자 밍글고져
 이 벼슬 다 드릴망정 도령님이 되고져

초장에서는 내 나이를 깎아내서 열다섯 살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이 작품의 작자는 종장에서 자기 신분을 드러냄으로써 사대부로서 벼슬길에 있는 사람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화자는 젊음에 대한 욕망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종장에서 보여 주듯이 백발을 다시 흑발로 만들어서 아이의 얼굴로 만들었으면 한다. 벼슬을 다 주겠다는 것은 작자가 지니고 있는 소중한 가치와 그 외 모든 것을 쥐서 바꾸겠다는 욕망이다. 젊음이 그러한 가치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다 준다 해서 젊음을 살 수 있겠는가.

젊음을 향한 강한 욕망도 결국엔 늙음을 부정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본다.

고시조 대전 1075 청진 0264 김천택

綠駟 霜蹄 櫪上에서 늙고 龍泉 雪鏢 匣裏에 운다
 丈夫의 혜온 뜻을 속절업시 못 이루고
 귀밧테 흰 털이 놀니니 글을 설워호노라

초장은 하루에 천 리를 달리는 명마라도 달리지 않고 마구간에서 늙어 가면 아무 소용 없으며, 아무리 잘 드는 훌륭한 명검이라도 칼집 속에 그대로 놓아두면 아무 쓸모 없는 녹슨 칼과 같다고 했다. 여기서 녹이 상제라든가 용천 설악과 같이 잘 드는 칼 등은 모두 인용으로서 의지와 기백을 나타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작품이 노래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용맹, 그런 것이 아니며 ‘의지나 용맹을 숭상했던 사람’의 늙음과 늙음이 가져오는 허망함이다. 귀밑에 찾아온 백발을 만지면서 못다 편 포부를 못내 아쉬워하고 탄식하며 부르는 탄로가라 하겠다.

고시조 대전 4420.1 수남 0007 정훈
 죽기와 늙는 일이 그 무어시 더 설우니
 병드려 죽기논 설운 줄 모로려니와
 알고서 못 禁하논 白髮을 그야 설워 흐노라

‘탄로가’라는 명칭의 존재에서 보듯, 이들 작품은 ‘늙음’이라는 공통제재를 다루고 있다. ‘白髮’과 같은 환유적 표현은 늙음의 문제를 다루는 ‘탄로가’의 관습적, 보편적 장치에 해당한다. 늙음을 한탄하는 일련의 작품이 이 시조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생성, 향유되어 왔고, ‘탄로가’라는 시조 주제군의 대표적 유형으로 자리 잡고 있다.²³⁾ 늙음의 문제를 ‘죽자’와 비교하기도 하고, ‘서럽다’는 말을 매 장마다 등장 시키면서까지 늙음이 초래하는 비애를 내뱉고 있기 때문이다. 초장에서는 늙는 일과 죽는 일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서럽냐고 말하면서 병들어 죽는 일은 서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늙어서 백발이 오는 줄은 알지만, 그것을 막지 못해 병들고, 죽는 일보다 더 서럽다고 한탄하고 있다. 이렇게 ‘서럽다’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한탄의 정서를 토로하고 있는 노래라 할 수 있다.

고시조 대전 4239.1 청진 0445
 저 건너 저 뒤흘 보니 눈 와시니 다 희거다
 저 눈 곳 노그면 프른 빗치 되련마논
 희은 後 못 검논 거슨 白髮인가 흐노라

온 산하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다. 이 아름다움을 인간사에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다. 산하에 내린 눈은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 백색의 세상을 만든다. 눈이 녹으면 자연은 본래의 모습인 푸른 빛이 되살아 나는데 노인들의 하얀 머리털은 다시 검어지지 못하는가 하고 탄식하는 탄로의 노래이다.

23) 최홍원, 「탄로가의 진술 방식과 태도의 변주」, 『문학교육학』 47. 한국문학교육학회, 2015.

고시조 대전 4761.1 원국 0202

靑山에 눈이 오니 峯마다 冚이로다
 저 山 푸르기는 봄비에 잇거니와
 엇디투 우리의 白髮은 검겨 볼 줄 이시라

이 작품은 모두 자연의 모습 변화를 기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청산’은 자연 일반의 대상이면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가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의 흐름과 관련하여 ‘경과’와 더불어 ‘순환’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연의 시간 경과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반복’, ‘순환’되는 원리를 갖는다. 탄로가에서는 늙음의 문제가 이처럼 자연의 변화가 순환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인간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반성적인 의식에서 비롯된다. 초장에서는 자연의 변화에서 출발한다면, 중장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사실에 맞춰지고 있다. 겨울에 눈이 오면서 옥빛이 되더라도 봄비를 맞으면 다시 푸른 빛을 되찾게 되는 점을 서술하고 있다. 자연과 인간의 이 같은 차이가 작품 세계를 이끄는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²⁴⁾

고시조 대전 0636.2 애경 0003 남극엽

꽃나무 심은 섬의 쓰늬이 양기로다
 꽃 보고 술 부우이 애돌올샤 빅발이여
 빅발아 레 짐작하여 더디 나미 엇더하니

이 작품은 백발을 한탄한 노래다. 초장은 꽃과 술이 있으니 양기가 돈다고 했다. 중장에서는 백발이 화자가 노인임을 깨닫게 해주니 애답다 했다. 종장에서는 백발을 향해 알아서 더디게 나는 것이 어떠냐고 말함으로써 늙음을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고시조 대전 4827.1 원불 0241 이정신

靑春에 보던 거울 白髮에 곱쳐 보니
 靑春은 간 디 업고 白髮만 뵈는고나
 白髮아 靑春이 제 갓스라 네 쫓춘가 호노라

24) 최흥원, 앞의 논문.

늙지 않고 싶다는 소망을 표출한다는 점에서 탄로가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초장, 중장, 종장에서 백발이라는 어휘를 사용함으로써 늙음의 문제를 도출시키고 있다. 백발이란 늙음의 외형적 변화로 관습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백발이 청춘을 쫓아 버렸다며 원망하는 노래다. 젊었을 때 봤던 거울을 비쳐 보았더니, 젊었을 때 얼굴은 간 곳이 없고 백발만 보이더라고 했다. 종장에서는 백발에게 말한다. 젊음이 스스로 간 게 아니고, 백발 네가 쫓아 버린 게 아니냐고 묻고 있다. 청춘과 늙음을 대비시키면서 백발에 대해 한탄한 노래로 볼 수 있다.

2. 노장 : 늙음을 순리로 여김

늙음을 한탄하며 사는 노인들도 있지만, 늙음을 순리로 받아들이고 남은 여생을 충실하게 가꾸고자 하는 노인들도 있다. 이들은 늙음을 부정하는 것보다는 한탄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보편화된 삶의 에너지를 이루고자 하는 인식과 태도로 노익장을 과시한다. 노인들이 늙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으로는 자신의 장단점을 잘 보완해 가면서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조선 시대 윤기(尹耆, 1741~1826)는 늙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다.

囂塵厭視聽 번잡한 세상 보고 듣기 싫으니
 安用聰明司 귀와 눈을 어디다 쓸까
 僻陋學靜坐 외진 곳에서 정좌를 배우니
 不須馬牛馳 말과 소를 달릴 필요 없어라
 失睡或溫故 잠이 없으니 책 읽기 좋고
 恃粥聊救飢 죽만 먹어도 허기 면할 수 있네
 自然增動忍 자연히 동심인성 증가하니
 何妨有忘遺 잊어버리는 것이 무어 해로우랴
 好對門垂柳 문 앞의 수양버들을 즐겨 대하고
 喜看孫覓梨 손자가 배 찾는 걸 기쁘게 보네
 經義尋究得 경전의 의리를 고구해 깨닫고
 世情閱歷知 세상의 물정을 경험해 아노라

大道乃如彼 대도가 저렇듯 환하니
 至樂孰過茲 지극한 즐거움이 무엇이며 이보다 더하리25)

여기서 윤기는 늙어 좋은 점을 열거하고 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가치 없는 존재, 쓸모없는 존재로 부정적으로 보려 한다. 하지만 노인들은 늙어 가면서도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 하며 노익장을 보이려 한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려 하며, 늙음을 인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순리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자 한다.

고시조 대전 3798.1 약고 0369 이정보
 이 몸이 늙거신들 마음조차 늙글손가
 老驥 伏櫪 ㅎ여도 志在千里라 ㅎ얏느니
 두어라 老當益壯이니 슬허 무삼 ㅎ리

이 작품은 백발이라는 어휘는 없으나 노당익장이라는 어휘가 말해주듯이 노익장에 대한 대표적 노래라 생각되어 살펴보기로 한다.

늙은 준마가 마구간에 었드려 있다 하더라도 뜻을 천 리에 두고 있다는 조조의 시 <귀수수>26)를 인용하여 몸은 늙었으나 마음까지 늙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늙어 갈수록 젊은이들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며 노익장을 과시하였다. 백발 속에서도 젊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늙음도 받아들이기 나름이며, 삶의 궤도에서 중요한 축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도 말하여 주고 있다.

고시조 대전 0527.2 청영 0250 흥봉한
 今夜月 昨夜 긋고 今年花 去年 긋터
 어인 白髮은 나날 다르느고
 두어라 花前月下의 白髮歌로 놀니라

25) 윤기, 이규필 역, 「<늙음을 한탄하는 시>에 차운하여」, 『무명자집』 제4책,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4.

26) “老驥伏櫪 志在千里, 烈士暮年 壯心不已.”

홍봉한의 작품이다. 조선 영조·정조 때 문신으로서 그의 앞날을 이야기하고 있다. 태평한 세월을 말해준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은 그에게 백발만 더 해준 것이다. 종장에서는 늙어 가는 자신에 대한 자탄인 셈이다. 그러면서 백발에 대한 무심함을 보인다. 작년과 같은 달과 작년의 꽃 앞에서 백발가를 부르면서 인생을 즐길 것이라고 오히려 의기양양함을 보인다. 종장에서 ‘두어라’는 종장의 백발에 대한 상황을 유보하려고 한다든가 반전시키려하고 있다. 백발을 탄식하는 대신에 꽃과 달빛 아래서 백발가를 부르며 논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초장과 종장에서는 꽃과 달을 백발에 비교함으로써 변화를 주고 있지만, 종장에서는 백발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고시조 대전 4729.1 율정 0006 최학령
 靑년도 귀커니와 백발도 더욱 어려우리
 靑코도 어려운 주를 아난다 모로논다
 少長이 咸集하야 長醉不醒을 하자

젊음도 귀하지만 늙어 백발이 되어 살아남는 것도 어려운 일이라 했다. 백발이 되어 오래 사는 것도 즐거운 일이니, 젊은이나 늙은이 모두 술에 취하여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늙음을 긍정적으로 보고자 하거나 받아들이려는 작품의 노래이다. 박영우는 「이태극 시조에 나타난 노년, 죽음 의식 연구」라는 논문에서 “장자는 늙음이 생활에 안일 즉 편안함을 가져다주는 특성이 있다고 말한다. 노년에 이르러 안일을 누리다는 것은 무위도식이나 봉양 받기만 의미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다. 힘겨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으로써 일을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다.”²⁷⁾라고 하였다. 늙음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힘든 노동일을 안일하게 누리기보다는 그러한 일들을 즐기면서 함으로써 주체성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고시조 대전 5149.1 영류 0068
 八十 悔하논 뜻은 八十을 낮바호미
 八十 다 살고 또 八十 살작시면

27) 박영우, 「이태극 시조에 나타난 노년, 죽음 의식 연구」, 『국어문학』 53, 국어문학회, 2012, 21쪽.

百年을 그음을 사마 늘글 뉘를 모로리라

노년을 노래한 시조에서 일반적이고 자주 사용된 어휘들이 노년에 대한 좌절이라든가 회한, 또는 탄로이다. 이 작품은 시조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지만, 시조의 내용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은 모두 오래 살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갈망들은 노년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초장과 중장에서는 팔십을 살고 또 팔십을 살고 싶다는 욕망과 함께 백 년을 살더라도 늙을 줄을 모른다며 노익장을 과시하고 있다.

고시조 대전 4831.1 시관 0012
 靑春을 사자 하니 팔 사람 뉘 잇으며
 白髮을 팔자 현들 그 뉘라서 사겠는고
 두어라 팔도 사도 못할진데 노소동락

청춘과 백발을 대비하여 늙어 가는 시간에 대해서 순리대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청춘을 사려고 하나 누가 팔겠으며, 백발을 팔자 해도 살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여 화자는 사고팔 수 없을 바에야 늙은이와 젊은이 함께 순리를 따라 같이 가자고 한다.

고시조 대전 0468.1 청진 0355
 귀 밋치 세여시니 늙이 늙다 허려니와
 내 믿음 저물선정 늙의 말 허물허라
 꽃과 술 쥬히 너기기가 엇든 老少 이시리

몸은 늙었으면서 마음만은 늙지 않은 것을 노래한 작품이다. 남들이 귀밑의 센 머리카락을 보고 이미 늙었지 않았냐고 흥을 보지만 화자는 아무렇지 않다고 한다. 중장에서는 화자 자신의 마음가짐을 드러내고 있다.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늙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그러면서 남들이 하는 말에 대해 토를 달지 않겠다고 한다. 종장에서는 노소에 차이가 없음을 밝히고 있다. 설령 자신이 늙었다 하더라도 꽃 좋아하고 술 좋아하기는 젊은이나 늙은이나 같지 않겠냐고 한다. 화자 자신도 꽃과 술을 좋아한다는 것을 은근히 밝히는 것이다.

고시조 대전 1889.1 이재 0010 황윤석
 白髮의 小室 보니 琴瑟舊情 더욱 싫다
 時時로 思量하면 二十九年 어제런 듯
 아마도 새로 네오 天數 | 오니 설움 즐김 무엇하리

화자는 부인이 죽자 소실을 들인 후의 소감을 노래하고 있다. 초장은 소실을 들이긴 하였으나 죽은 부인과의 정을 잊지 못한다고 하였다. 29년의 결혼 생활이 때때로 생각나 그립다고 한다. 그러면서 화자는 종장에서 소실을 들인 거나 죽은 본부인이나 하늘이 정하여 준 운명이니 서럽다 즐겁다는 감정은 필요 없다고 한다. 소실을 들이면서 노익장을 과시하려 했을 것이다.

고시조 대전 1892.1 청옥 0268 신희문
 白髮이 公道 | 업셔 넷 사람의 恨은 비라
 秦皇은 採藥하고 漢帝은 求仙하였나니
 인생이 自有天定하니 恨을 줄리 이시라

초장에서는 백발의 공평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백발은 공평함이 없어 옛사람들은 탄로가를 부르며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중장에서는 장수를 갈망하는 사람의 대표인 진시황과 한무제를 등장시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로초와 신선을 구하려 하였지만 끝내 이루지 못하였음을 나타냈다. 그리고 종장에서는 인생은 하늘이 정한 것이니 한탄할 필요가 있겠느냐 라 하며, 주어진 인생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것을 주문하고 있다.

고시조 대전 1128.1 청진 0292 이증집
 뉘라셔 날 늙다논고 늘근이도 이러한가
 곳 보면 반갑고 蠶보면 우음 난다
 春風에 훗는 白髮이야 낸들 어이하리오

남들이 나를 늙었다 하지만 나는 전혀 관계치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화자의 몸과 마음이 분리되었다. 몸은 늙었다고 하지만 마음은 젊어 꽃 보면 반갑고 술을 보면 즐겁다고 했다. 종장에서는 봄바람에 흩날리는 흰

머리카락을 화자 자신도 어떻게 해볼 수 없노라며 늙음을 순리로 받아들이고 있다.

3. 노화 : 늙어 가는 모습

인간은 나이를 먹어 가면서 신체의 감각기관과 기능이 저하되므로 노화를 동반하게 된다. 행동에서도 민첩성이 떨어지고, 언어능력이나 기억력도 차차 감소되기 시작한다. 신체의 변화뿐만 아니라 심리적 변화까지 동반하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에서 “청년은 의욕과 노력을 환희라고 생각한다. 청년이 쾌활하고 발랄한 것은 부분적 인생이라는 산을 오르고 있을 때 산 저쪽 기슭에 있는 죽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노인은 지나간 하루 하루가 교수대에 끌려가는 사형수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느끼는 감정과 같다.”²⁸⁾라고 하여 젊은이들과 노인들 간의 삶의 감정이 다를 수 있음을 말하였고, 나이를 먹어 갈수록 소유욕은 강해져 간다고 말하고 있다.

젊은이들은 생각하는 것에 대한 융통성을 보이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 변화를 시도하는 데 주저함이 없는 반면, 노인들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굳어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노인들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①신체적 변화로 오는 문제점 ②질병에 대한 문제점 ③배우자와 친구들과의 이별 문제점 ④조직사회의 퇴임 ⑤경제력 상실 문제점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고시조 대전 1154.1 병가 0519 박도순
 늙기 셔른 거시 白髮만 너겨찌니
 귀 먹고 니 썩지니 白髮은 餘事 | 로다
 그 밧긔 半夜 佳人도 쓴 외 본 듯후여라

신체적 변화가 가져오는 늙어 가는 것을 개탄스러워하는 노래다. 귀먹고 이 빠지니 백발이 오는 것은 한결 낯더란 것이다. 밤에는 아름다운 여인마저 외면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신체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증상이다.

28) 쇼펜하우어, 정필태 옮김, 『쇼펜하우어 염세철학 입문』, 청목서적, 1989, 209쪽.

노인이 되면 외모부터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거기다 낙치(落齒)가 오고, 귀도 먹으니 모든 행동에 제약을 받기도 한다. 서로 대화하는 것도 부자연스러워 멀리하려 한다.

고시조 대전 2215.1 선석 0013 신계영
 사름이 늘근 후의 거우리 월쉬로다
 무음이 저머시니 네 얼굴만 녀겼더니
 쉰머리 빙건 양즈 보니 다 주거만 ㅎ여라

이 작품은 거울 속에 비치는 화자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마음은 아직 젊는데 탕탕하던 얼굴은 간데없고 쭈글쭈글하고 허연 머리만 보이더라 했다. 외모의 변화로 인한 마음속의 모습과 거울 속의 모습은 너무 다른 것이다. 현실적으로 보는 모습은 너무 비참하더라는 것이다. 이렇듯 외모가 주는 영향과 마음의 갈등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고시조 대전 1125.1 동명 0371
 뉘라서 날디여 늙그라 ㅎ여관디
 이제 白髮翁이 되야논고
 歲月이 如流 ㅎ니 절로절로 늙거도다

누가 나보고 늙으라 하였던고 하니 이제 백발노인이 되었다. 세월은 물 흐르듯 빨라 절로 늙더라는 것이다. 신체가 노화로 바뀌는 시간은 눈 한 번 깜박거리는 순간이다.

고시조 대전 5133.1 해주 0520 김수장
 터력은 희였셔도 마음은 푸르렀다
 곳은 날을 보고 態업시 반기건을
 閻氏네 므슨 타스로 눈 흙임은 엇세요

백발은 왔어도 마음만은 아직 젊은이들 못지않다 이야기한다. 꽃은 노인이라 하더라도 차별 없이 반기는데 젊은 여인은 뭣 때문에 나에게 눈 흘김을 하느냐며 반문하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에서 안쓰러움이 배어 나온다.

고시조 대전 3251.4 시단 0150
 앓춤의 저멋더니 저물기야 다 늙거다
 경니 빅발은 엇던 사람 안즈난고
 두어라 즈셰이 보니 아마 년가 하노라

전광석화와 같은 시간의 개념이 나타난다. 아침까지도 젊었던 젊음이 저녁에 늙은이로 변해 버렸다. 시간의 흐름은 순간이다. 그래서 거울 속에 비치는 나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 모습이 저렇게 변해 있더라는 것이다.

고시조 대전 3201.1 해주 0521 김수장
 어화 어릴시고 이 니 일 어릴시고
 니 靑春 누를 주고 뉘 白髮 맛닷논고
 이제야 아모리 츄즈런들 물을 곳이 업세라

화자는 갑자기 찾아온 늙음에 당황하게 되고 깊은 고뇌에 찬 모습이다. 항상 젊음의 변화가 없이 지속하길 바랐지만, 한순간에 백발의 모습을 보고 후회와 원망하며 당황해하는 것이다. 내 젊음을 누구를 주며, 누구의 백발을 가져오겠는가. 삶이란 그런 것이다. 화자는 늙음에 대해 마음의 준비가 안된 상태다. 시간의 흐름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갑자기 늙어 버린 모습에 후회하고 원망하는 것이다.

고시조 대전 1756.1 풍대 0188 이세보
 미만삼십 이니 몸이 빅발 업는 노인이라
 눈 어둡고 귀운 업고 알느니 병이로다
 아마도 청춘의 석은 간장 늙기도 먼저

작자 자신이 겪는 고난을 화자를 통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초장은 한창 젊은 이십 대 나인데 백발 없는 노인처럼 늙어버렸다 했으니 많은 고통을 받은 것 같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한 십 년은 늙어 버린 것 같다’라 표현하는 것과 같다. 젊은 청춘인데 애간장이 다 녹았다 했으니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을까 짐작이 가는 작품이다.

고시조 대전 3706.1 청계 0034 강복중
 六年을 그리드가 오날은 만노보니
 紅顏은 어디 가고 白髮만 부터 노니
 그득기 시름한 간의 눈물계워 흐노라

그리워하던 연인을 만나는 장면을 노래했다. 6년 만에 헤어져 있던 연인을 만났더니 옛날의 젊던 모습이 아니다. 젊고 예뻐던 모습을 찾아보려니 그 모습은 어디 가고 흰머리에 늘어버린 모습만 보인다. 6년 만에 이렇게 늘어버렸나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고 하였다.

4. 유락 : 늙었음에도 즐기는 모습

유락의 작품은 자연과 인생을 즐기면서 초월적인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노래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범효춘은 논문에서 “노인 시조 중에는 지혜로운 노인이 되어 스스로 얻게 된 주관적 안녕감과 근심 없이 평안함을 표현한 시조들이 있다. 강호 시조는 근본적으로 강호의 생활을 긍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시조들이 있는데 ‘안빈낙도’와 ‘수분지지’등으로 분류된 시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시조들은 자신의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주관적인 느낌으로 만족감과 평안함을 표현하는 것”²⁹⁾이라며 벼슬살이에서 물러나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노래했다고 본다.

고시조 대전 1891.1 청육 0280 김민순
 백발을 훗날니고 靑黎杖 잇쓸면서
 滿面紅潮로 綠陰 中에 누엇찌니
 偶然이 黑髭鄉丹夢을 黃鳥聲의 씨거다

술에 취하여 녹음 속에서 단잠을 즐기며 소일하는 전형적인 유락 생활을 노래한 작품이다. 술 한 잔에 얼굴은 붉어 녹음 밑에서 잠들었다가 꾀꼬리 울음소리에 단잠을 깨었다. 이러한 시조들은 노인들 삶의 완숙기를 보여 줌으로써 노년의 심리적 안정됨을 소박하게 보여 준다.

29) 범효춘, 「‘성공적 노후’ 관점에서 본 노인 시조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논문, 2017, 168쪽.

고시조 대전 2501.1 갈유 0009 김득연
 生涯는 數莖 白髮 心事는 一片 靑山
 雪月 風花애 四時 佳興 다 7쫓다
 이 외에 즐거운 이리 또 업슬가 ㅎ노라

몸이 늙었다는 것을 ‘수경 백발’로, 마음이 젊다는 것을 ‘일편 청산’으로 나타냈다. 여기서 백발은 늙은 몸의 상징이기는 하나 젊은 마음과 대비되는 것으로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연을 즐긴다는 주제에 봉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작품은 갈봉 김득연의 <산중 잡곡> 아홉 번째 노래이다. 흥을 노래함으로써 풍류를 즐기는 삶의 모습을 그리며 산중에서의 풍요로운 삶을 노래하고 있다. 종장은 사시의 아름다움을 백발의 노인의 마음으로 내면화한 모습을 보인다. 이 시조에서는 관습적인 주제를 다루면서 실생활과 결부된 것으로 보이는 구체적 사물들을 활용하고 ‘수경백발’과 같은 표현을 통하여 작가가 자연을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자신과 결부시키려는 의식을 읽어낼 수 있다.

고시조 대전 0438.1 병가 1031
 君不見 黃河之水 | 天上來 ㅎ다 奔流到海 不復回라
 又不見 高堂明鏡 悲白髮 ㅎ다 朝如靑絲 暮成雪이라
 人生이 得意須盡歡이니 幕使金樽으로 空對月을 ㅎ여라

자연과 황하와 하늘의 조화에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였다. 도도하게 흐르는 물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다. 그러나 한 번 흘러가 버린 물은 다시 돌아 오지 못하는 인생과 시간을 상징한다. 유한한 우리의 인생을 작자는 과거의 시간과 미래의 시간이 공존하는 낭만적인 시간으로 표현하였다. 종장에서 작자는 이루지 못한 꿈을 술을 마시는 것을 통해 위안과 불만을 표출하였으며, 덧없이 흐르는 세월과 만고의 시름을 표출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지향하고 있다.

고시조 대전 0383.1 악나 0805

狂風驟雨中에 蟹網을 일흔 漁翁
 白髮을 훗날리며 굽일기논 무슴 일고
 석양에 밀물 허거든 곳쳐 츠츝볼가 흐노라

벼슬에서 물러나 바다 어부가 되었다. 그러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 게 잡는 그물을 잃어버린 것이다. 백발을 훗날리며 찾아보았지만, 찾지 못하였으니, 석양에 물이 빠진 후에 찾아보겠다는 것이다.

고시조 대전 1547 고유 0041 윤선도

萬柳綠陰 어린 고디 一片苔磯 奇特하다
 이어라 이어라
 ㄸ리에 다든거든 漁人爭渡 허물 마라
 至匆忽 至匆忽 於思臥
 鶴髮老翁 만나거든 雷澤讓居 效則하다

초장에서 무성한 버드나무 녹음이 드리운 곳에 조그마한 바윗돌이 놓여 있음을 보고, 화자는 “一片苔磯”라 하였다. 그리고 바윗돌을 “기특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을 화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연이 빚어낸 최고의 낚시터이기 때문이다. 이 기특한 장소를 새롭게 발견한 것은 고산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한낱 조그마한 바윗돌에 불과하지만 낚시터로서는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ㄸ리에 다든거든 漁人爭渡 허물 마라”라는 것은 기쁜 마음 그지없이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은 자신의 심정을 우회적으로 나타낸 것이다.³⁰⁾

고시조 대전 1888.1 지음 0324

白髮漁樵江渚上에 慣看秋月 春風이로다
 一壺濁酒喜相逢하다 古今多少事 都付笑談中이로다
 山空夜靜하데 잇다감 蜀魄이 울 제 不勝慷慨하다

백발로 강가에서 고기 잡고 나무하며 가을 달과 봄바람을 보고 또 보았

30) 이상원,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도서출판 월인, 2000, 67~68쪽.

다. 한 향아리 탁주로 즐겁게 서로 만나 옛날 이야기에 웃음꽃을 피우고, 산은 텅빈 듯하고 밤은 고요한데 이따금 소쩍새가 울어 강개한 느낌을 준다고 했다. 소쩍새가 울어 역사의 변천에 대한 비분강개한 느낌이 짙게 들게 하는 작품이다.

고시조 대전 3028.1 병가 0971

아희야 물鞍裝 ㅎ여라 타고 川獵을 가자
 술병 걸 제 ㅎ혀 蠶 이즐세라 白鬚를 훗날니며 여흘여흘 건너
 가니
 내 뒤에 쓴 쇼 탄 벗님니는 ㅎ기 가자 ㅎ더라

삶의 여유로움을 보여 주고 있다. 냇가에 나가 그물을 쳐서 물고기를 잡고, 술병만 챙기지 말고 잔까지 잘 챙기라고 주인이 당부한다. 그러면서 백수를 흘날리며 흐르는 냇물을 건너는데 뒤에 소 타고 오는 벗은 함께 가자고 한다.

고시조 대전 5440.1 잡평 0271

紅顏 白髮 저 老人의 東方朔의 벗이런가
 서왕모 비파 타고 적송자 잔 드리니
 오늘에 인간 신선을 처음 본 듯

붉은 얼굴과 백발은 서로 맞지 않는다. 홍안 즉 젊음과 백발 즉 늙음의 대비법으로 표현하였다.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동방삭은 장수(長壽)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다. 서왕모의 아름다운 비파소리와 적송자가 올리는 술잔을 보니 신선을 보는 것과 같다고 했다.

고시조 대전 2685.1 시관 0100

세월이 수이 잘도 간다 영천수 흐르는 듯 술녕술녕 人生百年
 얼마두고
 덧없이 오는 白髮 다투서 금하야 막을 손야 富貴 功名 조타 해
 도 狂風에 片雲이라 時平時平 不再來라
 종흥 시절 어려우니 이러한 絶代佳人 저러한 風流男子 이렇저
 령 노라보세
 아서라 此生百年 積善功德 많이 하야 後生 千年 玉京 天堂

極樂世界 만히만히 노라 보세

사설시조 한 수다. 세월은 물 흐르듯 빨리 가는데 인생살이 백 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오는 백발은 막을 수 없음을 화자는 서글퍼한다. 부귀공명이 아무리 좋다 해도 미친 듯 붙어 대는 바람 앞에 구름 한 조각과 다를 바 없음을 강력하게 보이고 있다. 인생을 그렇게 비유한 것이다. 미인들과 놀아보자고 하였다가 갑자기 내세의 삶으로 바뀐다. 내세에서 천년을 살기 위해서 옥경, 천당, 극락세계 등 각 종교를 찾았다. 프로이트는 죽음을 정의하기를 “죽음의 본능은 드러나지 않게 작용한다. 죽음의 본능은 그 사명을 완수한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죽음의 본능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³¹⁾라고 하였다. 프로이트는 죽음이라는 실체는 아무도 모르며, 누구에게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부정하지도 피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한다. 죽음에 가까운 노인들은 죽음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고 말한다.

시조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더 늙기 전에 마시고 흥겹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고시조 대전 5191.1 해박 0405
 푸른 山中 白髮翁이 고요獨坐 向南峯이라
 바람 부니 松生瑟이요 안개 끼니 壑成虹이라 주걱啼禽은
 千古恨이요 적다 鼎鳥는 一年豊이로다
 어늬 뉘셔 山 寂寞소 나는 호올로 樂無窮인가 호노라

푸른 산속에서 백발노인이 남쪽 산봉우리를 향하여 홀로 고요히 앉아 있다.

바람이 불어와 소나무 잎을 스치니 그 소리가 거문고 소리와 같고, 주걱 주걱 우는 새는 촉나라 망제의 한을 품은 듯하고, 솔이 작다고 우는 새는 풍년을 바라는 듯하다. 이런 자연 속에서 화자는 홀로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

31) 프로이트 著, 이학 譯, 『프로이트 심리학 연구』, 청목서적, 1987, 61쪽.

고시조 대전 2840.1 해박 0450
 술아 너는 어이 혼 늦출 불키논이
 혼 늦 불키논니 白髮도 검기라문
 진실노 검기곳 검기면 長醉不醒 ㅎ리라

이 작품은 애주가의 녀두리라 할 수 있다. 술을 마시면 낮을 붉게 만드는데 백발도 검게 해달라는 것이다. 술을 의지해서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다. 술이 백발을 검게 해준다면 진실로 말하건대 매일 술에 취해 깨어나지 않을 거라 한다.

고시조 대전 5132.1 해주 0530 김수장
 터력은 거무나 희나 世事는 갖고 쌀코
 거문고 한 닢 우희 니 노리 굿지 말고 우리의
 벗님네와 잡씨니 勸 ㅎ거니 晝夜長常 노스이다
 百年이 쉼 갖다 혼들 헛마 어이 ㅎ리오

이 시조의 작자는 세상사와 백발에 달관하는 사람 같다. 초장에서는 머리털이 검거나 희거나 상관 않고 세상사는 다 같다고 한다. 중장에서는 거문고와 술과 벗과 권커니, 잔 커니 하면서 밤낮 동안을 취하여 놀아 보자고 호기를 부린다. 백 년이 꿈처럼 사라진다 해도 설마 어찌하겠는가 하며, 걱정이나 한탄을 찾아볼 수 없고 여유로워 보이는 삶을 노래하고 있다.

5. 소년경계 : 젊은이를 향한 충고

노인들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현실에 직면해 있는 갈등을 받아들이고 늙음을 극복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경계의 모습을 보이는 작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노인들은 자기들의 늙음을 한탄하고 젊었을 때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을 후회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자신을 거울삼아 더 늙기 전에 후회스러운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학업과 덕행을 쌓아 허송세월하지 않기를 바라고 충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유형의 작품을 여기서 소년경계로 분류하고자 한다.

고시조 대전 4264.1 청요 0033 김진태

저 總角 말 듯거라 少年光景 자랑마라
 光陰이 덧업슨이 綠髮이 卽 白髮이로다
 우리도 少年을 밋다가 비훈 일이 업세라

젊은이들에게 경계심을 심어 주는 노래다. 세월의 흐름이 얼마나 빨랐으면 녹발이 곧 백발이라 했을까. 전광석화처럼 순식간에 바뀌는 인생을 그렇게 말한 것이다. 작품에서 시간과 젊음을 대비시켜 표현하는 것은 자주 쓰는 시간관이다. 이러한 것은 시간의 덧없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이루지 못한 욕망에 대한 후회와 젊은이들에게 부지런히 공부하기를 당부하는 경계의 마음이라 생각한다.

고시조 대전 5392.1 시관 0078

허허 소년들아 백발 보고 웃들 마소
 公公한 一天下에 년들 일생 청춘이라
 나도야 黃昏 佳約 紅顏 美人 다리고 밤 들도록
 노든 제가 어제인 듯

노인들은 지금까지 살아온 관념대로 하려고 한다. 끈대 짓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기에 젊은이들과 소통하기 어렵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희롱하려고 한다. 예로부터 삼강오륜을 도덕적 규범으로 삼았다.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교육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때로는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를 젊은이들에게 보이면서 자기처럼 인생을 망가뜨리는 삶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경계의 충고도 한다.

고시조 대전 5441.1 풍대 040 이세보

흥안 실시한 년 후의 빅발이되 탄식한들
 다시 점기 어려우니 추희 막급 할 썬이라
 엇지타 경박 소년이 니스를 몰나

소년에게 너희들도 머지않아 늙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 한다. 자기처럼 허송세월 보냈다가는 백발 된 후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충고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초장에서는 잃어버린 젊음을

강조한다. 젊음을 잃어버리고 백발이 된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나 젊음은 다시 올 수 없다 했다. 자신의 늙음을 탄식하면서 젊은 너희들도 늙음이 머지 않아 가까이 오게 되므로 허송세월 보내지 말라고 충고를 하고 있다. 이러한 이치를 모르는 경박한 젊은이들은 장차 늙음이 다가올 것을 모르고 세월을 허송한다고 탄식한다.

고시조 대전 1895.1 율정 0005 최학령
 白髮이 다 늘근 줄을 風情은 전혀 낮고
 花林을 向하야 倒千觴을 恨만다이고
 少年들아 웃디 말라 너도 이리 ㅎ리라

이 작품에서는 시적 화자가 삶을 긍정하고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심리적 안정감 속에서 자신의 인생 여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삶의 순리에 순응하려고 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초장에서는 백발보다는 풍정이 더 주체가 된다. 자신이 늙은 것도 잊어버리고 꽃밭에서 취하도록 술을 먹고 있다. 자신의 행위가 소년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을 만큼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 있어 소년들에게 경계를 주고 있다.

고시조 대전 3837.1 선석 0007 신계영
 이바 아이들아 새해 온다 질겨 마라
 현서한 歲月이 少年 아사 가느이라
 우리도 새해 질겨 하다가 이 白髮이 되었노라

선달 그믐날이다. 내일이면 새해가 된다. 아이들은 설날이라 하여 좋아하지만 야단스러운 세월은 소년도 앓아가 버린다. 우리 역시 새해를 즐겨 하다가 나도 모르게 백발이 되었노라고 소년들에게 경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분명 늙음을 한탄한 노래이지만 그가 한탄하는 것은 단순히 늙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제 늙었기에 넉넉한 전원의 삶을 오래도록 연장할 수 없으므로 그것이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다. 이 작품은 신계영이 지은 것인데 그의 전원은 한가하면서도 풍요로운 삶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치사한 객(致仕閑客)의 여유로운 시각이 투영된 결과다. 신계영은 43세(1619)에 문과에 급제하여 요직을 거쳐 호조 참판과 순천 부사를 지내다 1655년에 치사환향(致仕還鄉)하여 이 작품을 지었다.³²⁾

고시조 대전 2278.1 악서 0450
 私 업슨 白髮이요 信 잇는 四時로다
 節節 도라 오니 흐르난니 年光이라
 어즈버 少年行樂이 어제론 듯 ㅎ여라

백발은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모두 공평하게 오고, 계절 또한 신의를 지켜 오는 것이니, 세월의 흐름은 속절없이 빠르기만 하여 남은 여생도 얼마 남지 않았다. 여기서 화자는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 깨닫고 소년 행락만 생각하고 있다. 사사로움이 없는 백발에서 보듯이 인생 역시 잠깐이라는 것을 말하며 누구에게나 공평한 백발에서 허무함을 느낀다.

고시조 대전 3043.1 청진 0350
 ㄹ자 내 少年이야 어드러로 간 거이고
 酒色에 잠겨신 제 白髮과 밧괴도다
 이제야 아모리 촌즌들 다시 오기 쉬오라

잃어버린 자신의 젊음은 어디로 갔느냐고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벼슬 길에 있을 때 주색에 잠겨있었더니 젊음은 백발과 바뀌었더라며, 아쉬움을 말하고 있다. 종장에서는 잃어버린 젊음은 다시 찾기 어렵다는 것으로 소년들에게 경계의 모습을 권하고 있다.

고시조 대전 4825.1 청진 0354
 靑春 少年드라 白髮 老人 웃지 마라
 공번된 하늘 아래 넌들 미양 저머시라
 우리도 少年行樂이 어제론 듯 ㅎ여라

초장에서 ‘청춘 소년’과 ‘백발 노인’을 대비시킴으로써 젊음과 늙음이라는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여기서 청춘 소년은 노인들에게 지시를 받는 입장이고,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경계하는 입장이다. 여기서 주된 지시는 ‘웃지 마라’는 것이다. 너희들이라고 항상 젊음을 유지할 줄 알았느냐고 물으며, 우리도 너희들처럼 젊었을 때가 있었노라고 한다.

32) 이상원, 앞의 책, 87-88쪽.

고시조 대전 1511.1 풍대 0382 이세보
 뜰 압해 석죽화는 박꽃출 웃지 마라
 빅발 안 될 쇼년 업고 쇼년 아닌 노인 업다
 엇지타 슈유광음의 즈랑 계워

덧없는 세월에 대한 늙음과 탄식을 노래한 작품이다. 초장에서는 붉은 패랭이꽃과 흰 박꽃 간의 젊음과 늙음을 서로 대비하여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아쉬워 하며 소년들에게 경계를 말하여 주고 있다. 패랭이꽃(젊은이)에게 흰 박꽃(늙은이)을 비웃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언젠가는 백발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세월은 잠깐이니 젊다고 너무 방자하지 말고 겸손하라며 경계의 말로 주의를 주고 있다.

6. 계일 : 날짜 감을 아쉬워함

덧없는 세월을 원망하면서 하루하루 날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 장부로서 큰 뜻을 펼치지 못하고 강호의 생활에서 늙어 가는 서글픔을 노래한 작품이다. 향촌 사족들이나 벼슬에서 물러난 사대부들은 강호에 은둔하면서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탄식과 무정함을 달래기 위해서 시조를 짓고 노래를 불렀다. 안빈낙도(安貧樂道)하는 것은 유가(儒家)의 이상이기도 하지만 향촌 사족들이나 사대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다.

인생이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관점에 의해서 정해진다. 젊은 것을 성장기로, 늙은 것을 인생의 완숙기로 느낄 수 있고, 젊은 것을 절정기로 늙은 것을 황혼기로 느낄 수도 있다.

고시조 대전 3930.1 약고 0499
 人生이 有限하고 歲月이 如流하니
 丈夫의 功業을 어니 씨에 일을소나
 鏡裏에 白髮을 보니 가슴 씩씩하여라

인생은 한정되어 있고 세월은 물처럼 흘러가는데, 자기가 품었던 꿈도 이루기 전에 백발이 찾아왔더라는 것이다. 아무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이미

늙어 버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끔찍하다고 말한다. 그 정도로 하루
 하루 세월이 흘러가는 것이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는 말이다.

고시조 대전 1203.1 병가 0331 유혁연
 덧눈 물 셔셔 늙고 드눈 칼 보미 썰다
 無情 歲月은 白髮을 지촉하니
 어즈버 聖主 鴻恩을 못 갑을가 흐노라

달리던 말이 선 채로 늙어 가고, 보검이 녹이 슬어 간다고 하여 무장의
 신분으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대유법을 써서 표현
 한 작품이다. 무정한 세월은 백발만 재촉하여 나의 욕망과 사기를 무력하게
 만들고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채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사로
 잡혀있다.

고시조 대전 0613.1 해일 0330
 감아괴 너를 본이 글여도 애드래라
 너 무슨 藥 먹소 마리쫓차 검엇는다
 암아도 白髮 검길 藥은 못 어들싸 흐노라

다시 젊어지길 바라는 애뜻함이 담겨 있다. 초장을 보면, 까마귀에게 자
 신의 애담음을 하소연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을 되돌아보니 더 서글프다는
 마음이며, 까마귀에게 무슨 약을 먹었길래 항상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느냐
 고 묻는 것은 화자 자신도 항상 흑발(黑髮)을 갖고 싶다는 욕망을 내비친
 것이다. 까마귀의 검은 털을 통하여 젊음에 대한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다.

고시조 대전 1894.1 청진 0430
 白髮이 功名이런들 사름마다 ㄷ톨지니
 날 곱튼 愚拙은 늘거도 못 볼랏다
 世上에 地極은 公道는 白髮인가 흐노라

늙음이 세상의 가장 공평하고 바른 도리라는 것을 읊은 평시조다. 백발이
 사람들에게 공평한 만큼, 사람들은 공평함을 얻기 위하여 다툼 거라 했다.

그러나 그 공평함을 얻는 데는 어리석고 졸렬한 자신에게까지는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체념 상태로 들어간다. 즉 늙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푸념이다. 백발이 세상의 가장 공평하고 바른 도리라 하였다. 인생의 시간을 누가 더 잘 활용했느냐에 상관없이 사람들 모두에게나 공평한 도리라고 한 노래이다.

고시조 대전 0670.1 해주 0484 김수장
 곳 지즈 봄이 점을고 술이 盡초 興이 난다
 逆旅光陰은 백발을 빅얏는디
 어디셔 妄淸에 것드른 노지 말나 ㅎ는이

세월에 아쉬움을 토로한다. 꽃도 다 지고, 봄도 끝나가는데 술은 이제야 흥을 돋운다. 지나간 길손처럼 훌쩍 가버린 세월은 백발을 재촉하니, 남은 여생을 즐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망령된 소리이다. 인생의 덧없음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로서 흥을 돋우어 풀어 보자는 것이다.

고시조 대전 1820.1 청진 0351
 半 남아 늘거시니 다시 점든 못하여도
 以後 | 나 늙지 말고 미양 이만 ㅎ엿고자
 白髮아 네나 짐작ㅎ여 더디 늙게 ㅎ여라

초장에서 반 정도 늙었다 하니 초로의 늙은이라 생각된다. 화자는 이미 노화가 시작됨을 스스로 받아들여려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된 것 같다. 지나간 세월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이상 늙음은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화자의 고뇌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종장에서 시간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천천히 늙어 가기만을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노래다.

고시조 대전 0506.1 약나 0784
 그제 아희러니 어제는 少年이라
 오날은 白髮이니 니일은 니 물니라
 두어라 歷旅過客이니 니 뜻디로 ㅎ리라

우리의 삶의 과정을 축소시켜 놓은 노래다. 초장은 어린애에서 젊은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며, 중장은 백발이 된 모습과 앞으로 어떤 모습의 변화가 올지 모른다고 했다. 날짜 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화자 자신은 세월 흐르는대로 자유롭게 살겠다고 한다.

IV. 백발 소재 시조의 문학사적 의의

시조에서 백발이라는 어휘는 시조가 처음 시작되었던 고려 말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백발이라는 어휘는 늙음의 문제를 노래하기 위해 동원된 대표 어휘이고, 늙음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 1) 고시조 대전 5304.1 해일 0581 우탁
 흔 손에 가식을 쥐고 또 흔 손에 매를 들고
 늙은 길은 가식으로 막고 온은 白髮은 매로 칠엿튼이
 白髮이 눈치 몬져 알고 줄엄길로 오건야

- 2) 고시조 대전 0934.1 율정 0003 최학령
 내 말슴 삼가디 몬흐에 白髮孤囚 도연다
 本心을 도라보게댄 번 구홀 분이로다
 두어라 ㅁ으미 니러커니 몸 가티를 슬허허라

- 3) 고시조 대전 1148.1 선석 0014 신계영
 늙고 병이 드니 白髮을 어이하리
 少年行樂이 어제런 듯 하다마는
 어디 가 이 얼굴 가지고 옛 내로라 하리

- 4) 고시조 대전 3727.1 해주 0343 이정보
 銀漢은 늙하지고 기력이 운일씩의
 훗웃밤 서릿김에 두 귀밧치 다 세거다
 鏡裏에 白髮衰容을 흔즈 슬허호노라

- 5) 고시조 대전 1604.1 금옥 0006 안민영
 梅影이 부드친 窓에 玉人金釵 비겨신져
 二三 白髮翁은 거문고와 노리로다
 이윅고 黹드러 勸호랄져 달이 또한 오르더라

1)은 고려말 우탁(禹倬, 1263~1342)의 탄로가(嘆老歌) 중 둘째 수다. 우

탁은 호를 역동(易東)이라 했으며, 진사 우천규(禹天珪)의 아들로 본관은 단양이다. 1308년 감찰 규정으로 있으면서 충선왕과 사이가 좋지 않아 고향에 은거하면서 후진양성에 전념하였다. 역학에 능통하여 ‘역동선생’이라 불렸다. 역동은 은거 생활을 하면서 많은 작품을 남기지 않았으며, 한시 1수와 시조 3수를 남겼을 뿐이다. 역동의 작품은 한글이 없던 시절이라 구전으로 불리다가 후에 기록되어 전하여진다. 우탁의 탄로가(嘆老歌)는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이면서 탄로가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으며 수준 높은 문학성을 지닌 작품이다. 작품 속의 화자는 인간에 대한 자연 질서의 우위와 늙음에 대비하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었지만, 백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순식간에 찾아온 것으로 그려지고 있다. 화자는 자연에 대한 경이로운 변화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한편으로는 늙음에 대한 허탈감과 세월의 덧없음을 아쉬워하고 있다. 여기서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을 매로 친다’는 표현, ‘백발이 지름길로 달려온다’는 비유는 실로 우수함을 보이고 있다. 후에도 탄로가(嘆老歌)의 작품이 많이 나왔지만, 우탁의 작품에는 이르지 못하여 실로 문학성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³³⁾ 시조 형성기 역동의 작품은 삶에 대한 성찰이 백발로부터 왔으며, 고려 말기의 쇠퇴해져감을 지적함과 같다고 볼 수 있다.

2)는 16세기 최학령(崔鶴齡, 1512~1562)의 작품이다. 최학령은 자가 운로(雲老), 호가 울정(栗亭)으로 나주 초동 출신이다. 약간의 유고 및 관련 문자들을 모아 엮은 『울정선생행록』과 부모의 상을 당해 3년간의 거려(居廬) 생활 동안에 쓴 일기 형식의 기록인 「고우록」을 펴냈다. 23세 때 사마시에 합격하고, 29세 때 문과에 장원급제하였지만 흥패에 글자 한 자가 잘못 쓰여진 것 때문에 장원급제가 취소되었다. 이후 벼슬길이 막혀 일생을 초야에 묻혀 살았다.

작품 초장에서는 자신이 말을 조심하지 못하여 백발고수가 되었다고 하여 벼슬을 하지 못함에 대해서 스스로 밝히고 있다. 중장에서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몸이 갇힌 것보다 자신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친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젊은 시절 장원급제 취소로 인생사가 완전히 꼬여 버린데다 만년에 설화로 인해 감옥살이까지 경험하게 된 최학령 으로서는 이런 개인사적 아픔을 노래로 달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³⁴⁾

33) 박수천, 앞의 책 468쪽.

34) 이상원, 「“육가(六歌)” 시형의 연원과 “육가형 시조”의 성립」, 『어문논집』

3)은 17세기 신계영(辛啟榮, 1577~1669)의 시조이다. 신계영은 광해, 인조, 효종, 현종 때의 문신이다. 1619년(광해군 11) 알성문과에 급제하여 검열, 병조좌랑, 예조좌랑 등을 지냈다. 1624년(인조 2) 통신사 정립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건너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정권 장악을 축하하고,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 온 조선인 146명과 함께 귀국했다. 1639년, 2년 전 병자호란 때 볼모로 잡혀간 소현세자를 영접하는 부빈객이 되어 선양에 다녀왔다. 1655년에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저서로는 일본에 가서 지은 시와 선양에 가면서 지은 시, 수창시 등으로 구성된 『선석유고』가 있다.

작품은, 초장에서 늙고 병든모습에서 젊었을 때 즐거웠던 시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음을 한탄하였다. 가벼린 젊음을 그리워하고 찾아오는 백발이 싫다는 것을 토로하였다. 늙음이 인격의 성숙과 노년의 존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라는 점에서 유교 사회의 전통적 가치보다 젊음이 더 가치 있다는 인간 본연의 시각이 드러나 있다.

4)는 18세기 이정보(李鼎輔, 1693~1766)의 작품이다. 이정보는 18세기의 대표적인 경화세족이다. 그의 가문은 17·18세기 최고의 가문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그의 시조 향유는 18세기 경화세족의 시조 향유를 대표하는 측면이 있다. 이정보는 100여 수의 작품을 남기고 있으며, 대부분 그가 만년 때 지었다고 보며, 18세기 중반에 왕성한 활동을 했다고 본다³⁵⁾

이 작품은 늙음을 탄식하는 작품으로서 가을 밤의 풍경으로 은하수와 기러기의 울음소리를 대비 시킴으로서 화자 자신의 처량함을 보이고 있다. 노화 현상이란 서서히 온다. 작자는 거울 속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에서 갑자기 하룻 밤 사이에 백발이 되어 버린 모습에 당황하게 되고 탄식을 하게 된다.

5)는 19세기 안민영(安玟英, ?~?)의 작품이다. 안민영은 그의 스승 박효관(朴孝寬, 1800~1881?)과 함께 조선 후기 3대 가집의 하나인 『가곡원류』를 공편했고, 가곡 원류계의 일종인 『해동악장』을 편찬하였으며, 가객으로서 유일하게 개인 창작 가집 『금옥총부』를 남긴 당대의 대가객이었다. 위의 작품은 안민영의 개인 시집인 『금옥총부』에 수록된 <매화사> 8수 중에 첫수다. 작품 속의 시간적 배경은 경오년(고종 7년, 1870) 겨울밤이며, 공

52권, 민족어문학회, 2005, 200~ 203쪽.
 35) 이상원, 「李鼎輔 時調 해석의 시각」, 『한국시가연구』 12집, 한국시가학회, 2002, 165~193쪽.

간적 배경은 스승인 박효관이 거처하는 운애산방이다. 스승 박효관이 매화를 좋아하여 <매화사>를 지었으며, ‘우조(羽調) 일편(一遍) 팔절(八節)이다’라고 후기에 기록하고 있다. 중장의 ‘二三 白髮翁’은 스승 박효관, 거문고의 명인 오기여와 전주 기생 향춘(香春) 등 음률에 정통한 가금 명인들과 명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³⁶⁾ 이 작품은 <매화사>의 첫머리에 놓이는 작품임에도 매화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니 놀 수 없는 유흥 조건을 노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실상에 가깝다. 이 때의 매화란 시인이 마음을 쫓고 있는 정신적 지향처의 표상이 아닐 뿐더러 단순한 완상물조차 아니며 특정한 상황의 효과를 만들어 내는 구성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³⁷⁾

이상에서 보듯이 백발을 소재로 한 시조는 고려 말에서부터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창작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백발 소재 시조는 계층적 측면에서도 양반, 여향인, 기녀 등을 가리지 않고 두루 창작되었다.

1) 고시조 대전 1203.1 청진 0204 유혁연

덧논 물 서서 늙고 드는 칼 보되거다
 無情歲元은 白髮을 지족하니
 聖主의 累世 鴻恩을 못 가플가 흐노라

2) 고시조 대전 1511.1 풍대 0382 이세보

쓸 압혜 석죽화는 박숫출 웃지 마라
 백발 안 될 쇼년 업고 쇼년 아닌 노인 업다
 엇지타 슈유광음의 즈랑 계워

3) 고시조 대전 1145.1 해주 0487 김수장

늙고 病든 情은 菊花에 붓쳐 두고
 실갓치 헛튼 愁心 墨葡萄에 붓쳐노라
 귀밋티 훗나는 白髮은 一長歌에 붓쳐노라

36) 구충희, 「안민영의 작품 세계 연구-『금옥총부』에 나타난 인간 관계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박사논문, 2020.

37) 류준필, 「安玟英의 <梅花詞>論」, 白影 鄭炳昱 先生 10週忌追慕論文集,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575쪽.

4) 고시조 대전 1155.1 청진 0232 김삼현
 늙기 설은 줄을 모르고나 늘것는가
 春光이 덧이 업서 白髮이 절로 낫다
 그러나 少年씩 믿음은 감흔 일이 업세라

5) 고시조 대전 4830.1 병가 0560 계섭
 靑春은 언제 가며 白髮은 언제 온고
 오고 가는 길을 아뉘던들 막을 낫다
 알고도 못 막을 길히니 그를 슬허 흐노라

6) 고시조 대전 1615.1 해박 0274 매화
 梅花 넷 등걸에 春節이 도라 오니
 넷 뒀던 柯枝에 피염즉도 흐다마는
 春雪이 亂紛紛 하니 필동말동 흐여라

1)과 2)는 사대부의 작품이다.

1)은 17세기 유혁연(柳赫然, 1616~1680)의 작품이다. 유혁연은 인조, 효종, 현종, 숙종 때의 무신이다. 29세(인조 22)에 무과에 급제하여 덕산현감과 선천부사 등 공직을 하기 시작하여 형조판서를 지냈다. 64세에 훈련대장을 끝으로 퇴임하였다. 경신대출척으로 남인이 제거될 때 허적(許積)과 결탁했다고 하여 제주 대정에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글씨와 그림에 능했다. 1)은, 무장 유혁연의 탄식을 노래한 것이다. 초장은 말의 늙어감과 칼의 녹슬음을 통해 무장으로써 자신의 모습이 멀어졌음을 대유법으로 표현하였다. 중장에서는 무정한 세월에 대한 원망을 나타냈다. 무장으로써 칼 쓰고 말달리는 현장에서 멀어져 있다는 자아정체성에 대한 회의를 드러냈다. 종장에서는 임금의 은혜에 부응치 못하는 데 대한 두려움을 탄식하였다.

2)는 19세기 이세보(李世輔, 1832~1895)의 작품이다. 이세보는 인조의 동생인 능원대군의 8대손 왕족 출신이었으나 왕실과는 거리가 먼 사대부 출신이었다. 1860년(철종 11)에 동생 이세우의 문제로 안동 김씨들과 불화로 경평군 작호를 빼앗기고 3년 동안을 완도 신지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된다. 이세보가 유배지에서 철종의 은덕을 노래한 시조와 유배길의 여정과 고통이 『신도일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6권의 시조집을 남겼으나 다른

문집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세보의 시조는 기존에 시조 사상 최다 작가로 알려져 있던 안민영(187수)의 작품보다 더 많은 459수가 발견되었다.³⁸⁾ 특이한 점은 종친 사대부 출신으로서 탐관오리의 부패상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60여 수의 관료비판 시조, 100수가 넘는 많은 양의 애정 시조를 남겼다는 것이다.³⁹⁾ 이 노래는 덧없는 세월과 늙음을 탄식한 노래이다. 초장에서는 붉은 패랭이꽃과 흰 박꽃을 각각 젊음과 늙음으로 비유하여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을 아쉬워하였다. 패랭이꽃(젊은이)과 흰 박꽃(늙은이)을 비웃지 말라고 의인화해서 젊음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었으며, 젊은 너희들도 언젠가는 백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잠깐 사이에 흘러가는 세월이니 너무 젊음에 대해서 자랑하지 말고 다소곳하라는 경계의 말로 주의를 주는 작품이다.

3)과 4)는 여항인의 작품이다.

3)은 김수장(金壽長, 1690~?)의 작품이다. 김수장은 1690년(숙종 16)에 출생했다. 호(號)는 노가재(老歌齋)이고 중인 신분으로 33세(1723)까지 병조서리를 지냈다. 1755년에 가집 『해동가요(海東歌謠)』를 편찬하였으며, 지속적인 보완 작업을 거쳐 가집을 완성한 인물이다. 그가 언제 생을 마쳤는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나, 김중열의 작품 발문과 김두성의 작품 발문에 쓴 기록이 1770년인 것으로 봐서 80세 이상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보고 있다.⁴⁰⁾ 김수장이 71세 되던 해 1760년(영조 36) 가을, 화개동(서울 종로구 화동)에 노가재를 짓고 여기에서 가객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 초장에서 “늘고 병든 정”은 관습적인 표현이며 국화와 포도는 가을의 계절적 배경을 이미지화시킨 것으로 사군자를 대표하여 사대부들의 절개를 노래했다. 국화는 유학자들의 이념을, 포도는 다산과 변창을 상징하였다. 국화와 포도는 조선 시대 문인들이 즐겨 하였던 작품 소재의 하나였다.

4)의 작가인 김삼현(金三賢)은 출생년의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의 가인 주의식(朱義植)의 사위이다. 정3품 절충장군(折衝將軍)의 벼슬을 지냈다. 작품으로는 시조 6수가 전하여지고 있다. 작품으로는 은

38) 강혜숙, 「李世輔 時調의 효용론적 성격」-관료비판 시조를 중심으로 연구-, 『시조문학논총』 11집, 한국시조학회, 1995, 131쪽.

39) 정우봉, 「이세보의 국문 유배 일기 『신도일록』 연구」, 『고전문학연구』 41집, 한국고전문학회, 2012, 412~414쪽.

40) 이해경, 「노가재 김수장의 시조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논문, 2019.

거한정(隱居閑情)을 노래한 작품이 많다. 강호한정이나 늙음을 탄식한 노래가 있으며, 낙천적이며 명랑한 성품을 지닌 작가로 알려져 있다. 김삼현은 늙음에 관한 시조 2수, 강호 1수, 공명의 덧없음을 노래한 시조 1수, 절망적인 사랑을 노래한 시조 1수, 상산 사호 1수 등 모두 6수의 시조를 남기고 있다.⁴¹⁾ 김천택은 주의식의 작품에 대한 발문을 남겨 놓은 반면, 김삼현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남겨 놓지 않았다. 장인이었던 주의식에 비하면 비교적 단순한 내용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김삼현이 남긴 작품의 숫자는 미미하다고 보지만 질적으로는 최상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⁴²⁾ 작품 초장에서는 늙음이 젊음을 덧없이 흘려 보낸 결과임을 말하고 있다. 어느 날 인생 전체에 대한 무게를 바라보는 것이 늙음의 표현이라면 중심점은 과거의 후회일 것이다. 작자는 소년적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5)와 6)은 기녀(妓女)들의 노래다.

5)는 계섬(桂蟾, 1736~1797)의 노래다. 계섬은 아전 집안 출신으로 7세 때 부친을 여의고 뒤이어 12세 때 모친을 잃고 고아가 되었다. 이후 16세 때 창을 배워 명기로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하였다. 이정보(1693~1766) 수하에 들어가 당대 최고의 소리꾼이 되었다. 또한 계섬은 당시 가객인 이세춘과 금객인 김철석, 기녀인 추월, 매월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 노래는 계섬이 부른 늙음에 대해 탄식한 노래다. 초장에서는 청춘과 백발이라는 대비를 통해 어느덧 늙어 버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랜 표정을 나타내고 있다. 중장에서는 “오고 가는 길을 아뎏던들 막을 낫다” 하고 말하고 있지만, 이 탄식은 계섬 자신의 탄식일 뿐이다. 종장에서는 “알고도 막지 못할 길이 늙음이 오는 길”이라 하였다. 늙음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오는 현상이지만, 기녀한테는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현상이라 더 서러워 하는 것이다.

6)의 매화(梅花)는 시조 시인으로 평양의 기생이다. 자신의 기명을 가지고 자신을 빗대어 설정한 노래로서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잃어버린 자신의 신세가 과거의 영화를 누리기엔 쉽지 않음을 한탄하는 것이다. 종장에서 춘설(春雪)이 방해하여 매화 가지에 꽃이 필지 말지 모른

41) 김용철, 「숙종조<여항육인>의 성립과 시조의 특성」, 『국제어문』 34, 국제어문학회, 2005.

42) 조규익, 「《청구영언》소재 ‘여항육인’론」, 『송실어문』 10, 송실어문학회, 1993, 37쪽.

다고 하여, 늙어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서글픔을 표현하였다. ‘넷 등걸’이라는 것은 늙어 오래된 나무이며, 늙어버린 기생 매화 자신을 가리킨다. 고목 가지에는 봄철이 오면 꽃이 피지만, 매화 자신은 흘러간 청춘을 다시 찾을 수 없다는 탄식의 노래다.

한편 백발을 소재로 한 시조는 평시조와 사설시조 구분 없이 공히 나타나고 있다.

1) 고시조 대전 0714.1 영류 0118

나니 아히트 썩의 늙그니 戲弄트니
 이제 내 늙으니 아히 우음 되연제고
 아히야 늙그니 戲弄 말고 아히대로 노라라

2) 고시조 대전 3054.1 청진 0534

아흔아홉 곱 머근 老丈 濁酒 걸러 醉케 먹고
 남쪽도라흔 길로 이리로 저리로 빛독 저리로 빛척 빛독빛척
 뷔거늘 적의 웃지 마라 저 靑春少年 아히놈들아
 우리도 少年적 ㅁ음이 어제론 듯 ㅎ여라

1)과 2)의 평시조와 사설시조에서는 모두 희롱거리가 되어버린 노인을 그리고 있다. 내용은 동일하다 볼 수 있으나 구체성 면에서 평시조와 사설시조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평시조에서는 노인을 희롱거리로만 처리하였지만, 사설시조에서는 술에 취해 비척비척 대며 걸어가는 노인의 걸음걸이를 묘사하고 있다.

3) 고시조 대전 2216.1 해주 0375 이정보

스름이 늙근 後에 언제 또 절머 보며
 싸진 치애 다시 나며 白髮이 거물손야
 世上에 不老草 업쁘니 無可奈何로다

4) 고시조 대전 4345.1 청육 0884

제 얼굴 제 보와도 더럽고도 슬뫼워라
 검버섯 구름 썬 듯 코춤은 장마진 듯 以前에 업든
 뼈시바회 영덩이에 울근불근
 우리도 少年行樂이 어제런 듯 ㅎ여라

3)의 평시조에서는 이가 빠지고 백발이 된 모습과 구할 수 없는 불로초의 이야기를 한다. 4)의 사설시조에서도 얼굴의 검버섯을 구름에 비유했으며, 콧물이 흐르는 모습을 장마진 모습으로 과장법으로 표현하였다. 그런가 하면 양상한 영덩이는 빠져나온 바위로 묘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사설시조는 늙음을 묘사하는 노인상을 자세하게 묘사하므로 기존의 시가에서 표현하는 노인상과 변별된다. 위의 시조 작품들은 추한 노인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늙은 것을 탄식하고 슬퍼한다.

5) 고시조 대전 1046.2 시박 0451
 白髮이 섭흘 지고 怨호느니 燧人氏라
 불 업슨 적에도 萬八千歲 사라그든
 엇진지 始鑽燧호여 사름 困게 호느니

6) 고시조 대전 1888.1 지음 0324
 白髮漁樵江渚上에 慣看秋月春風이로다
 一壺濁酒로 喜相逢호야 古今多小事
 都付笑談中이로다
 山空夜靜호데 잇다감 蜀魄이 울 제 不勝慷慨호여라

5)는 불을 처음 발견한 수인씨 때문에 화식(火食)을 하게 됨으로써 인간이 수고롭게 된 것을 닷하는 평시조다. 흰머리에 쉼나무를 지고 수인씨를 원망하고 있다. 수인씨는 중국의 고대 전설에서 불을 발견하여 그 사용법을 전한 것으로 나오는 인물이다.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었는데 쉼나무를 저 나르는 자신의 신세를 수인씨 때문이라며 원망한 것이다. 중장은 고대인들의 장수함을 이야기한다. 나무 열매만 먹고도 만 팔천 년을 살았는데 화식이 귀찮다고 한다. 중국 전설에 의하면, 반고(盤古)가 만 팔천 년을 살았다고 한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을 피우고, 쉼감을 마련하는 데 귀찮다고 투정을 부린 것이다. 그러나 좀 더 멀리 생각해 보면 열매를 먹고 장수를 하였는데 화식을 해서 문명을 발달시킨 것이 꼭 인류에게 이롭기만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문제다.

6)은 나관중(羅貫中, 1330?~1400)의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시를 인용하고 역사 변천에 대한 강개한 심정을 노래한 사설시조이다. 초장에서는 “백

밭의 어부와 나무꾼은 강가에서 가을 달과 봄 풍경을 쳐다보고 있다.” 중장에서는 “한 병 탁주로 만남을 즐거워하고,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많은 이야기에 웃고 있다.”고 했다. 종장은 작자 자신의 역사에 대한 강개한 느낌을 말하고 있다. 산은 텅 빈 공간이고, 밤은 고요한데 가끔 두견이 울고 있다고 했다. 두견새가 울어서 역사 변천에 대한 비분강개한 느낌을 더욱 짙게 한다고 했다.

V. 결 론

본 논문은 고려 말에서 조선 후기까지 창작된 시조 작품에서 백발을 소재로 한 것들을 대상으로 유형 분류를 시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것의 문학사적 의의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시조 작품을 집대성한 『고시조 대전』에서 백발 및 그 유사 어휘를 검색하여 157 수를 연구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Ⅱ장에서는 18세기 김천택과 현대의 윤영옥의 사례를 살펴 본 후 이를 통합하여 늙음을 노래한 작품들을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적합할지 그 방향성을 모색해 보았다. 그 결과 탄로, 노장, 노화, 유락, 소년경계, 계일의 여섯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탄로는 늙음에 대한 탄식을 주로 노래한 것, 노장은 늙음을 순리로 여기고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 노화는 단순히 늙어 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 유락은 늙었음에도 이를 한탄하기 보다는 즐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 소년경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이를 향해 충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계일은 하루하루 날씨가 지나가는 것을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라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Ⅲ장에서는 Ⅱ장에서 분류한 여섯 가지 유형별 특성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작품 예시를 통해 유형별 특성을 분석해 보았다.

- 1) 탄로(늙음에 대한 탄식)는 늙음을 노래한 작품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늙어 가는 노인들의 모습이나 외모의 변화로 오는 늙음을 한탄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는 가운데 덧없는 세월의 안타까움과 인생무상을 한탄하는 것들도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 2) 노장(늙음을 순리로 여김)은 늙어 가는 것을 한탄하지 않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순응하고 극복하려는 태도를 노래한 작품이다. 이 유형에서는 늙음을 자신에게만 나타나는 개인적인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특징이 있다.
- 3) 노화(늙어 가는 모습)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으로 오는 변화의 모습을 그런 작품을 말한다.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신의 무기력을 드러내

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자괴감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일들은 노인들에게 우울증을 가져오게 한다.

- 4) 유락(늙었어도 즐기는 모습) 늙은 후로 오는 여유로운 생활을 노래한 작품이다. 인생의 유한성을 부각하고 놀고 즐길 것을 권하고 있다. 이러한 생활은 향촌 사족들이 여유로움을 갖는 속에서 이루어진 삶의 모습이다.
- 5) 소년경계(젊은이를 향한 충고)는 노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성찰하는 마음으로 소년들에게 허랑방탕한 세월에서 벗어나 공부하기와 성덕을 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충고해 주는 노래이다.
- 6) 계일(날짜 감을 아쉬워함)은 하루하루 날짜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나 장부로서 큰 뜻을 품었으나 그것을 제대로 이루지도 못했는데 날짜는 자꾸 빠르게 흘러감을 아쉬워하는 상태를 노래한 것을 가리킨다.

IV장에서는 백발을 소재로 한 시조가 갖는 문학적 의의에 대해 살펴 보았다. 백발을 소재로 한 시조는 늙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 늙음의 문제는 인간 보편의 문제이므로 어떤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시조사 전 시기에 걸쳐 꾸준히 창작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백발 소재 시조는 계층적 측면에서도 어떤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고 사대부, 여향인, 기녀 등 시조를 창작한 주요 계층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백발 소재 시조는 평시조와 사설시조의 차이 없이 골고루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백발을 소재로 한 작품을 대상으로 늙음의 문제를 시조 작품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고, 또 늙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였으나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표면적인 양상을 중심으로 간단한 유형 분류만을 시도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아쉬움은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단행본

- 김대행, 『시조 유형론』,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1986.
- 김용찬, 『조선 후기 시조문학의 지평』, 도서출판 월인, 2007.
- 김정주, 『詩歌文學研究』,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0.
- 김진영 외 5명 공저, 『한국 시조 감상』, 도서 출판사 보고사, 2011.
- 白影 鄭炳昱 先生 10周忌追慕論文集,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2000.
- 권순희, 이상원, 신경숙 주해편, 『청구영언 김천택 편』, 국립한글박물관, 2017.
- 쇼펜하우어 저, 정필태 옮김, 『쇼펜하우어, 염세철학 입문』, 청목서적, 1989.
- 이상원, 『17세기 시조사의 구도』, 도서출판 월인, 2000.
- 임기중 저, 『고전시가의 실증적 연구』, 동국대학교 출판부, 1992.
- 월터라 우리 저, 이 학 역, 『키에르케고르 생애와 사상』, 청목서적, 1988.
- 정병욱, 『한국 고전 시가 작품론』, 집문당, 2000.
- 조동일, 『시조의 넓이와 깊이』, 대한민국 학술원, 2017.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2,3』, 제4판, (주)지식산업사, 2005.
- 정재호, 『한국시조 문학론』, 태학사, 1999.
- 프로이트 저, 이학 역, 『프로이트심리학 연구』, 청목서적, 1987.
- 황병익, 『고전 시가 다시 읽기』, 새문사, 2006.

논문

- 강경호, 「김천택 편 청구영언 ‘무명씨’ 작품 배열의 내적 체계-청구영언 무명씨, 주제별 분류인가?-, 『국제어문』 75, 국제어문학회, 2017.
- 강재현, 「김수장의 시조 인식과 문학사적 의의」, 『어문연구』 48, 어문연구학회, 2005.
- 김미옥, 「노인의 소외감과 신체적 노화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한국간호과학회, Vol 17 No 1, 1987.
- 김미란, 「가사<백발가>의 시적 인식과 주제 지향」,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08.
- 김상진, 「시조에 나타난 ‘노년’의 고찰」, 『중앙어문학』 제9집, 중앙어문학회, 2017.
- 김양숙, 「고시조에 나타난 죽음의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4.
- 김양진, 「한국 고전문학의 노인 형상화 연구」, 동의대학교 박사논문, 2007.
- 김주천, 「시조유형의 대응에 관한 연구 : 고시조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1992.
- 권순희, 「18세기 가집 편찬과 무명씨」, 『대동문화연구』 100,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17.
- 구충희, 「안민영의 작품 세계 연구 : 『금옥총부』에 나타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박사논문, 2020.
- 남정희, 「18세기 경화 사족의 시조 향유와 창작 양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2.
- 박혜원, 「시조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태도와 발화양상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논문, 2018.

- 범효춘, 「‘성공적 노화’ 관점에서 본 노인 시조 주제 연구」, 가천대학교 박사논문, 2017.
- 서영숙, 「「노인가」류 가사의 서술방식과 의미」, 『고전문학연구』 13, 한국고전문학회, 1998.
- 성혜후, 「탄로계 가사의 성격과 내용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13.
- 안순태, 「윤기의 탄로시 연구」, 『국문학연구』 34, 국문학회, 2016.
- 양희찬, 「고시조 주제 분류 방법론」, 『시조학논총』 12, 한국시조학회, 1996.
- 윤석열, 「고시조에 나타난 늙음의 지각과 대응 양상」, 청주대학교 석사논문, 2002.
- 윤영옥, 「시조에 나타난 노인의 모습」, 『한민족어문학』 39, 한민족어문학회, 2001.
- 이상원, 「청구영언(가람본)의 성격과 계보학적 위상」, 『고전과 해석』 9, 고전문학한문학회, 2010.
- 이상원, 「“육가(六歌)” 시형의 연원과 “육가형 시조”의 성립」, 『어문논집』 52, 민족어문학회, 2005.
- 이혜경, 「노가재 김수장의 시조 연구」, 계명대학교 박사논문, 2019.
- 임재욱, 「시조의 노년 표현법」, 『돈암어문학』 36, 돈암어문학회, 2019.
- 장만식, 「<孤山別曲>과 <續文山六歌>에 나타난 늙음에 대한 갈등 극복 양상」, 『열상고전연구』 50집, 열상고전연구회, 2016.
- 정재호, 「백발가 고」, 『어문연구』 2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95.
- 정호완, 「만황청류 연구」, 『인문과학연구』 22,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1.
- 조규익, 「《청구영언》 소재 ‘여항육인’론」, 『송실어문』 10, 송실어문학회, 1993.
- 최선경, 「「청구영언」 소재 ‘노인시조’의 내용과 수사에 대한 일고찰」, 『수사학』 37, 한국수사학회, 2020.